외대학보

HUFS PR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038호
2019년 11월 20일 수요일

발행인 김인철 /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 편집장 김지수

hufs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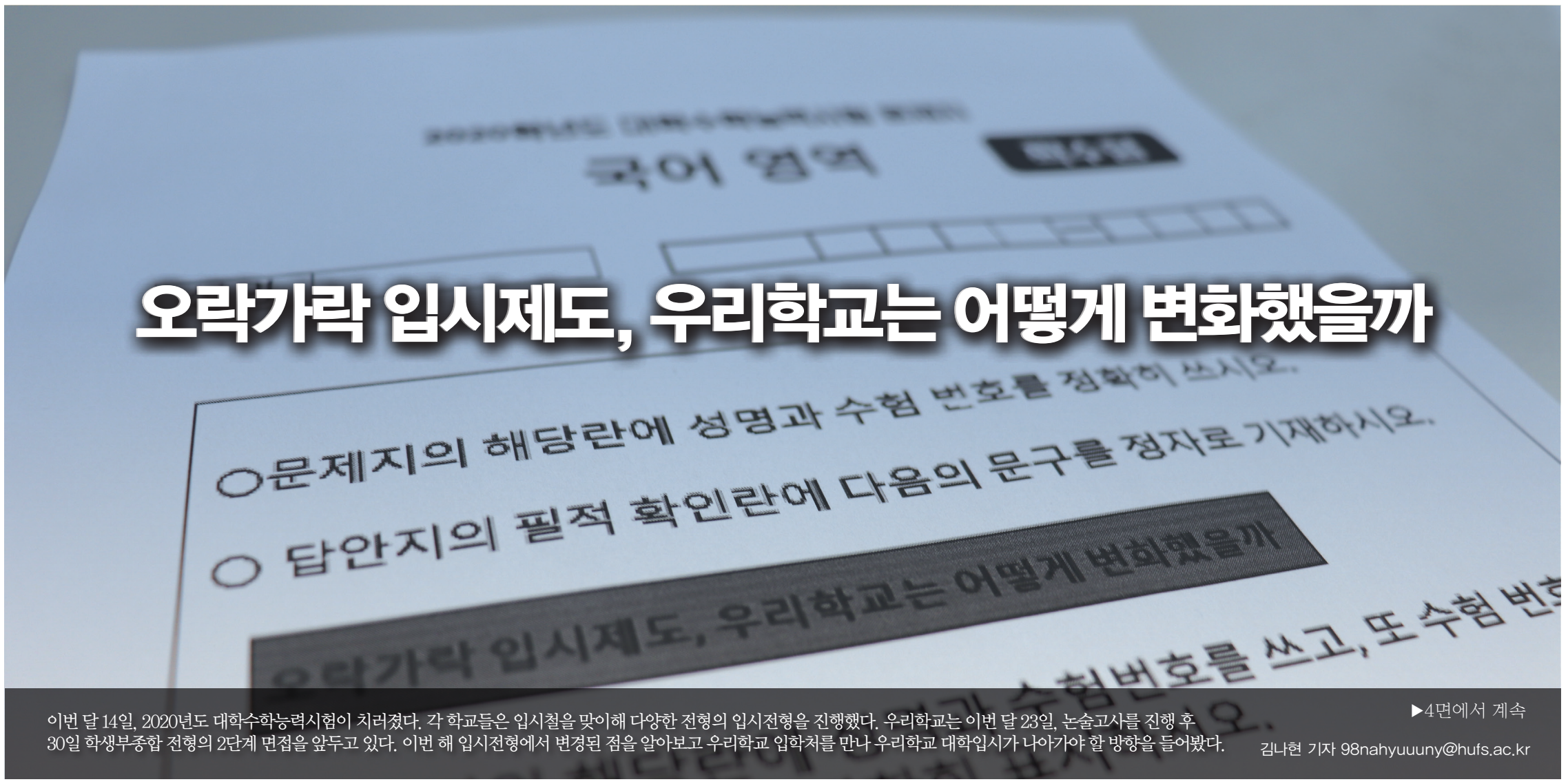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신문사 TEL.02-2173-250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심층] 》 3면
학술제

[기획] 》 5면
생리 공결제를 향한 다양한 시선

[사회문화] 》 8면
우리나의 폐지 돌림노래

[학술] 》 9면
주 52시간 근로제



오락가락 입시제도, 우리학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번 달 14일,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각 학교들은 입시철을 맞이해 다양한 전형의 입시전형을 진행했다. 우리학교는 이번 달 23일, 논술고사를 진행 후 30일 학생부종합 전형의 2단계 면접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해 입시전형에서 변경된 점을 알아보고 우리학교 입학처를 만나 우리학교 대학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다.

▶4면에서 계속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우리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짧고 굵은 아시아 영화제' 열어

▲짧고 굵은 아시아 영화제 포스터

이번 달 14일부터 17일, 우리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가 서울극장 내 위치한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짧고 굵은 아시아 영화제(이하 영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를 포함한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서울터키문화원△사단법인 아시아문화콘텐츠연구소의 공동 주최 아래 열렸다. 이번 영화제에선 그동안 쉽게 볼 수 없었던 △터키△대만△싱가포르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의 영화가 상영됐다. 또한 해당 행사는 아시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됐으며 젊은 영화인 발굴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영화제 기간엔 영화 상영뿐 아니라 △감독과의 만남△시네토크△아시아 영화 포럼 등 다양한 행사도 열렸다.

한편 이번 해 제2회를 맞은 해당 영화제는 젊은 아시아 영화를 발굴하고 아시아 영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짧지만 굵은 묘사를 담고 있는 영화를 찾아내겠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안효빈 부장 97anhyobin@hufs.ac.kr

우리학교 언어연구소, 하반기 학술대회 열어

이번 달 1일 우리학교 언어연구소가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강연실과 세미나실에서 하반기 정기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HK세미오시스 연구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우리학교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원의 후원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선 '언어의 안과 밖: 접점과 소통'이란 주제로 언어와 인접 학문과의 융합을 위한 특수외국어학 연구 결과물들이 발표됐다. 김한샘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교수와 안희돈 건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발표 이전에 주제와 관련된 강연을 진행했으며, 발표가 끝난 후엔 100여 명의 청중과 함께 질문하고 응답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편 우리학교 언어연구소는 1969년에 우리학교 창립 15주년을 기념해 부설기관으로 설립됐다. 현재는 홍성훈 ELLT 교수가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우리학교 언어연구소는 언어의 보편적 특성에 대해 연구하는 동시에 언어활동의 구체적 실현을 가능케 하는 개별언어에 대한 △음운연구△형태 통사구조△의미구조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세워졌다. 이 밖에도 인지과학, 정보처리 분야 등의 인접 학문과의 교류를 도모하고 벤처기업과 연계해 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면으로 언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조미경 기자 99migyong@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2020년 외국어교육과정 안내**

◆ 해외연수 그 이상의 효과!

한국외대 외국어연수평가원의 외국어교육과정은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 전통에 실용성을 더한 국내 최고의 외국어 마스터 과정으로, 대학(원)생, 공무원, 기업체 임직원, 그리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어교육과정으로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를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20주 주간과정, 주말외국어교육과정, 단기간 실용회화능력을 집중 향상시키는 야간과정, 방학특별과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어학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기관 특성 및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형 외국어교육과정을 설계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교육일정

구분	과정명	개강시기	2020년 교육일정
주중과정	20주 주간과정	2월, 8월	02.03. ~ 06.19. 08.03. ~ 12.18.
	방학특별과정	1월, 7월	01.14. ~ 01.31. 07.16. ~ 07.31.
야간과정	야간과정	3월, 9월	03.23. ~ 06.11. 09.21. ~ 12.10.
	대학원외국어시험대체과정	3월, 9월	03.03. ~ 06.16. 09.01. ~ 12.15.
주말과정	주말외국어교육과정	3월, 9월	03.07. ~ 07.20. 09.05. ~ 12.19.
	평생교육원 통번역과정	별도문의	

※과정별 상세일정 및 교육비는 홈페이지 참조(http://flttc.hufs.ac.kr)
※외대생(동문) 교육비 할인 제공 / 일부 과정에 한함

◆기관 위탁 외국어교육과정 소개

교육특징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체, 공공기관 및 단체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맞춤식 교육과정 제공
교육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태국어 외
강사진	언어별 전공학과 전임교수, 외국어연수평가원 전임 교강사
절차	상담 → 교육모듈 개발 → 입교 → 교육 진행 → 평가 및 피드백
교육특전	교육과정 외 특별프로그램 제공(지역학 특강, 주임교수 튜터링) 외국어능력평가 제공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외국어교육 상담 및 문의 :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구분	연락처	이메일
20주 주간과정	02-2173-2525	flttc@hufs.ac.kr
주말과정, 기관 위탁과정	02-2173-2515	
야간과정, 방학과정	02-2173-2524	
평생교육원 통번역기초과정	02-2173-2524	edulife@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FOREIGN LANGUAGE TRAINING AND TESTING CENTER

우리학교 문화상점 이문일공칠 개관해

이번 달 6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교수회관 1층에서 '문화상점 이문107' 개관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개회△내빈 소개△테이프 컷팅△경과보고△기념사△축사△감사패 전달△기념 촬영△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개관식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민병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가정준 이문스프링사업 단장△이선범 서울캠퍼스 비상대책위원장△외부 인사△지역 주민 대표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문일공칠 개관식 단체사진

▲이문일공칠 테이프 컷팅식

이 행사의 경과보고에서 가정준 이문스프링사업 단장은 "이문일공칠이란 이름엔 문화적 랜드마크 개관을 통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고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말했다.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은 기념사에서 이문일공칠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우리학교의 합작품"이자 "우리학교가 전통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해온 인문중심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그마한 모멘텀"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많은 사람들이 캠퍼스의 정취를 느끼고 젊은이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문화상점 이문일공칠은 우리학교의 주소인 '이문로 107'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서울특별시 캠퍼스 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문화상점 이문일공칠의 목표는 지역 주민들에게의 문화 프로그램 제공과 창업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과 문화 활성화 도모에 있다. 이문일공칠 내부는 △서점△카페△문화공연홀 · 라운지△문구 · 기념품점△커뮤니티 · 컨퍼런스룸으로 구성됐다.

김지수 기자 97didu@hufs.ac.kr

조명덕 우리학교 명예법학박사, 모란장 수여받아

지난달 30일, 조명덕 우리학교 명예법학박사(이하 조명예법학박사)가 국민훈장인 모란장을 수여받았다.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나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총 다섯 등급으로 구성된다. 이 중 모란장은 두 번째 등급에 속한다. 조 명예법학박사는 국민교육 발전에 공을 세운 업적을 인정받아 이번 훈장을 받게 됐다.

▲조명덕 명예법학박사 사진

한편 조 명예법학박사는 우리학교의 발전과 저소득층 법학도를 위해 총 42억 원을 기부했다. 1993년엔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법대 학생을 위해 매해 3천만 원의 △학비△생활비△책값을 지원했으며, 사법고시 수험생들에게 오페라를 관람시켜주는 등 문화적 활동도 제공했다. 1999년엔 3억 원의 장학금을 법학과에 기탁했으며 이어 2007년 법학관 건립과 체계적인 법학과 발전을 위해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추가 기탁했다. 또한 2010년, 조 명예법학박사는 25억 원대의 부동산을 우리학교에 기부한 바 있다.

이에 우리학교는 조 명예법학박사에게 법대 명예 동문 학위를 수여했으며, 2007년 신축된 법학관 801호에 '조명덕홀'을 개관했다. 이후 2014년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해 조 명예법학박사의 기부에 감사를 표한 바 있다.

김나현 기자 nahyuuuny@hufs.ac.kr

'진혜옥(영어 · 영어71) 강의실' 헌정식 열려

이번 달 6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인문과학관 304호에서 '진혜옥(영어 · 영어71) 강의실' 헌정식이 열렸다. 이 헌정식엔 △김인철 우리학교 총장△윤석만 서울캠퍼스 부총장△나민구 교무처장△김봉철 학생 · 인재개발처장△곽선주 행정지원처장△이태욱 기획조정처장△오종진 국제교류처장△박상원 교양대학장△서경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故 진혜옥 교수는 우리학교 영어과를 졸업했으며 영어 통역가로 활동했다. 이날 故 진혜옥 교수의 자매인 진미경 초빙교수는 우리학교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이에 우리학교가 감사를 표하며 인문과학관 강의실을 헌정했다. 진미경 초빙교수는 "언니가 영시와 영문소설을 알려준 영향으로 대학교수가 될 수 있었다"고 말한 후 윌리엄 워즈워스의 '초원의 빛'을 낭독하며 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냈다. 또한 후배들이 발전하길 바랐던 故 진혜옥 교수의 뜻에 관해 이야기했다.

▲진혜옥(영어 71) 강의실 헌정식

김인철 총장은 축사에서 "故 진혜옥 교수의 뜻을 기려 후배들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홍창범(사회 · 정외 19) 씨는 "故 진혜옥 교수님과 그 동생인 진미경 교수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며 "선배님의 뜻을 기려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학영(서양어 · 프랑스어 16) 씨는 "선배님의 애교심으로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다"며 "동문으로서 학교 발전에 이바지해야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우리학교 총장배 인문학 토론대회 개최돼

지난 6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공학관 206호에서 제12회 총장배 인문학 토론대회(이하 토론대회) 개막식이 열렸다. 개막식은 △대회 소개△일정 소개△토론방식 소개△토론주제 소개△대진표 추첨△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개된 토론주제는 △예술과 도덕△인공지능과 인문학△기본소득과 인간의 기본권△혐오와 표현의 자유다. 각 경기별 발제문은 매주 수요일 토론대회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된다. 예선 에세이를 통해 토론대회에 참가 신청을 한 13팀 중 일부가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이뤄진 대진 추첨으로 총 세 팀의 8강 부전승이 결정됐다. 또한 나머지 열 팀의 찬성과 반대 입장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정해졌다. 결승전과 시상식은 다음 달 3일 치러질 예정이다.

▲총장배 인문학 토론대회 개막식

정문선(인문 · 철학 14) 제12회 토론대회 운영위원장은 "우리학교 토론대회를 운영한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토론 주제 선정과 경기 진행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토론대회는 △인문학△논리적 사고△건강한 논쟁의 중요성을 알릴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 있을 대회에도 많은 관심을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번 해 12회를 맞이한 토론대회는 2008년에 시작돼 매해 우리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서 주최하고 토론대회운영위원회가 주관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우리학교 학생 누구나 참여 및 참관이 가능하다. 토론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정해진 시간 내에 △입론△교차조사△반론△마무리 발언을 주고받는 형태인 세다(CEDA)식으로 진행된다. 상금은 총 110만원이며 수상팀에겐 상금과 함께 총장 직인의 상장이 수여된다.

허지나 기자 99_jina@hufs.ac.kr

우리학교 취업브리지 사업단, '사업 참여 학생과 기업 현직자와의 만남' 행사 개최해

지난 4일 우리학교 취업브리지 사업단은 '사업 참여 학생과 기업 현직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리스크관리△국립암센터△로렌츄 컴퍼니 등 14개의 기업과 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다음 해 1월부터 현장실습이 예정된 취업브리지 사업단 1기 학생들과 기업 현직자들의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개최됐다. 행사에선 사업 소개와 현장실습 경험 발표에 이어 △사업 참여기업 소개△현장면접△기업 현직자와 자유 면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학교는 지난 4월 3일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취업브리지 사업단 프로그램에 참여해 산업혁명에 대비한 전공과정을 진행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전공과정은 전공 공통교육과 전공 개별교육으로 나눠진다. 전공공통교육은 실무 중심 교육으로 △취업브리지 사업의 이해△4차 산업혁명 시대와 세상의 변화△기본역량 강화(회의록 및 보고서 작성)△직장인을 위한 인성교육 및 법△데이터 분석 역량 교육이다. 전공개별교육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응용비즈니스 전공과 디지털 융합경영 전공으로 나눠진다.

취업브리지 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이 도내 대학 재학생 300명을 선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대학의 전공과정을 운영하고 기업의 장기현장실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 ·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전공과정 참여 대학생에게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전공과정 수료 후 관련 기업 현장실습업무를 시행하게 되며 현장실습 이수 시 한 학기 당 12~15학점이 인정된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우리학교 학술제, 이대로 괜찮을까?

학술제란 학문의 결과를 교류하기 위해 학생들이 펼치는 행사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우리학교의 각 단과대학과 학과에선 여러 주제로 학술제를 진행했다. 명품특강부터 경진대회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된 이번 학술제는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학생들의 무관심과 학교의 미비한 지원으로 인해 활발히 개최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도 존재했다. 이에 △학술제의 다양한 행사△학술제 기간에 발생한 사건△학술제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봤다.

◆학술제의 다양한 행사

이번 해 우리학교에서 진행된 학술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캠퍼스	국제지역대학	11월 4일~8일	△주한불가리아대사의 특강△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코트라 부사장의 강연 등
글로벌캠퍼스	통번역대학	11월 5일~7일	△통번역대학 명품특강△시 낭송△학회들의 공연
글로벌캠퍼스	경상대학	11월 7일	△마케팅△빅테이터/IT△무역△경제/금융 등을 활용한 연구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주제로한 학생들의 발표
글로벌캠퍼스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11월 11일~12일	△VR△인공지능△IoT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 작품 전시
글로벌캠퍼스	인문대학	11월 18일	공공의 인문학'에 대한 소논문 발표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11월 6일~8일	△이중전공 설명회△다양성영화제 <동물, 원> 상영△단과대학 계간지 배포 등
서울캠퍼스	영어대학	11월 13일	각 팀별로 주제 선정 후 자유발표
서울캠퍼스	중국어대학		중국의 △정치△경제△사회△언어△문화 중 한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 팀·개인별 소논문 제출

▲단과대학별 학술제 행사

통번역 학술제에 시낭송자로 참여한 김선준(통번역 · 일본어 18) 씨는 "학술제에 직접 참여하면서 전공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게 됐다"며 "시 낭송을 통해 다른 언어들까지 들을 수 있어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인문대학 학술제에 참가한 양현지(인문 · 사학 19) 씨는 "같이 발표하는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앞두고 떨리고 걱정됐다"며 "대학에 와서 학술적인 논문과 발표를 해보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준비를 하면 할수록 배워가는 것이 많아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는 참가 소감을 밝혔다.

◆학술제 기간 발생 사건

학술제 기간 동안 여러 사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다. 첫 번째는 통번역대학이 주최한 나영석PD 특강의 진행 방식과 관련된 논란이다. 강연 시작 전부터 우리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에브리타임엔 강연 장소 입장과 관련된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이에 통번역대학 학생회는 "통번역대학 학술제에 참여한 단과대학 학생들이 입장한 후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단과대학 페이스북 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러나 통번역대학 학생이 400명 이상 몰리면서 강연 전부터 줄서 있던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을 포함한 일부 통번역대학 학생들이 입장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두 번째는 인문대학 학술제 관련 논란이다. 우리학교 언어인지과학과 학술학회 '사이시옷'은 인문대학 학술제 준비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학술제 준비과정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인문대학 게시판에 부착했다. 대자보엔 △학운위장의 위원 인사에 대한 견해와 인사권 남용△학술제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의 정보의 차등 제공과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식△학운위의 공문서 도용과 행사 운영의 미비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먼저 학운위장의 위원 인사에 대한 견해와 인사권 남용에 관한 내용이다. 학운위원 선출은 9월 26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학내 게시판이 아닌 인문대학 내 일부 메신저 단톡방과 몇몇 학우들만 구독하는 인문대학 SNS 계정을 통해 진행됐다. 이에 대해 학운위장은 "본인이 인수인계를 받았고 지난해 또한 비공개로 인문대학 학운위원이 선출됐으며 이번 해 공고를 통한 지원자도 있기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학내 게시판에 학운위원 모집 사실을 안내하지 못했고 학운위장이 본인의 지인들에게 학운위원 및 자원봉사자 직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이시옷은 △학운위장의 거짓 주장에 대한 공개사과△학술제 사무내역 공개△인문대학 학생회의 학운위 조사 및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다음은 학술제 프로그램 준비 과정에서의 정보의 차등 제공과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학운위는 학술단체 대표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학술제 관련 문건을 전달한 후 한 달 이상 참가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대자보에 따르면 학술제 3주 전인 지난달 25일, S학회 대표가 이에 대해 문의하자 학운위는 그제서야 "학술단체들의 학술제 참가의사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가의사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학회는 배제됐고 같은 달 31일 학운위는 S학회 준비 시간 마련을 위해 학술제 개최일자를 미루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번 달 1일, 학운위는 "일정을 미루지 않아도 S학회가 참가할 수 있다면 원래대로 일정을 진행하겠다"며 이전의 발언을 번복했다. 이에 사이시옷은 학운위의 사과와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운위의 공문서 도용과 행사 운영의 미비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학술제 참가 신청 마감일이었던 지난달 25일 밤 인문대학 학술제 홈페이지엔 외부 연구기관 논문 모집 공문이 게시됐다. 이에 학운위는 프로그램 상 문제였다며 첨부파일을 삭제했으나 이미 학생들은 이를 열람하고 논문대회 참가를 결정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사이시옷은 인문대학 건물과 학술제 개최 장소에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인문대학 내 일부 강의들의 출결은 학술제 참가로 대체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이시옷은 학운위가 논문대회에서 발표될 연구 결과물이나 단체가 진행할 학술 발표 주제를 학술제 당일까지 취합할 의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이시옷은 남은 기간 학술행사에 대해 안내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학술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이번 학술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이공계 학술제를 개최한 김문업(공과 · 컴퓨터 14) 공과대학 학생회장(이하 김 회장)은 "이공계 학생들의 실력을 맘껏 펼쳐 보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해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우리학교 학생들의 지적 소양의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느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학술제를 관람한 정은주(국제지역 · 아프리카 19) 씨는 "학과 공지를 통해 학술제를 알게됐다"며 "이를 통해 다른 학과와 학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수업이 겹쳐서 학술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임진희(국제지역 · 아프리카 19) 씨는 "학과 행사를 통해 학술제에 참여하게 됐는데 7+1제도나 코트라 인턴십같은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게 돼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일각에선 학술제 진행이 다소 미흡했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김민서(국제지역 · 한국 19) 씨는 "학술제가 어떤 행사인지도 몰랐다"며 학술제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김 회장은 "학술제에 대한 학교의 미비한 지원과 협조 그리고 교수님들의 무관심이 이번 행사를 통한 이공계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느꼈다"며 "이번 해는 운 좋게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의 후원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지만 학교의 지원과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학술제 진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학술제에 대한 학교의 지원과 학생들의 관심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오락가락 입시제도, 우리학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흔히 입시 철이라고 불리는 11월엔 다양한 전형의 대학 입학시험이 치러진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종 수시면접이 줄줄이 예정돼 있으며, 특정 분야의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풀어 적는 논술시험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번 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이번 달 14일로, 우리학교 정시전형의 최초합격자는 다음 해 1월 29일에 발표된다. 이처럼 입시 철을 맞이한 가운데 우리학교의 입학전형을 알아보고 지난해와 비교해 변경된 제도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학교와 다른 대학 입학전형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모든 대학을 망라해 입시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우리학교 입학처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우리학교 입학전형, 어떻게 구성됐을까

우리학교의 입학전형은 크게 수시모집 전형과 정시모집 전형으로 나뉜다. 수시모집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학생부종합전형△논술전형으로 구성된다. 이중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의 발달상황과 발달에 작용되는 제반 환경이 기록된 학교생활 기록부(이하 학생부)를 위주로 평가된다. 현재 학생부는 6학기의 교과 성적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수시모집 전형의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부가 학교생활과 관련해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은 교과 성적만을 반영해 선발한다. 인문계엔 △국어△수학△영어△사회과목의 성적이 선정되며, 자연계엔 △국어△수학△영어△과학과목이 반영과목으로 선정됐다. 한편 이번 해부터 학생부교과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반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선 학습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을 지닌 인재상을 선발하기 위해 교과 성적과 활동을 포함한 학생부의 전반적인 내용과 자기소개서가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평가항목은 △학업역량△전공 적합성△인성△발전 가능성으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2단계 면접평가를 진행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학생부교과전형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없는 두 수시모집 전형과는 달리 논술전형은 일부 모집단위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LD학부와 LT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반영되며,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해 우리학교는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캠퍼스 기준 1140명, 글로벌캠퍼스 기준 1013명을 모집해 총 215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시모집 전형에선 2020학년도 수능 성적을 기준으로 우수자 순으로 선발된다. 학생부가 주요 평가요소가 되는 수시모집 전형과는 달리 정시모집전형은 오직 수능 성적만이 당락을 좌우한다. 다만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서류평가 30%가 반영돼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해 정시모집전형 모집인원은 서울캠퍼스 기준 539명, 글로벌캠퍼스 기준 706명으로 총 1245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

이번 해 우리학교 입학전형의 주요 변동사항 중 하나는 학생부교과전형이다. 해당 전형에서 교과 성적 100%만으로 선발하는 대신,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학생부교과전형의 수험생들은 수능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우리학교 입학사정관실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 부담 완화와 사교육 축소를 위해 수능성적을 활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해왔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기조에 발맞추고, 수험생들의 지원기회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해 학생부교과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수시모집 전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수능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해 입학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실제로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다시 수능 최저기준을 반영한다. 우리학교 입학사정관실 관계자는 "대입 관련 절차는 소위 '3년 예고제'에 따라 3년 3개월 전부터 계획 된다"며 현재 사회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시 확대에 대한 내용과는 별개로 이번 해 입학전형은 이전에 결정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선 1단계 서류평가 후 실시되는 2단계 면접평가의 시기에 변화를 줬다. 2단계 면접평가를 수능 이전에 진행했던 이전의 방식과는 달리 이번 해 면접 평가는 수능 이후에 치러진다. 일각에선 이러한 변화가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자들이 수능 이전 합격 여부로 인해 받게 되는 심리적인 동요를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 또한 해당 전형에서 수험생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의 문항 수도 변경됐다. 자소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선정한 공통문항 3개와 대학별 자율 문항으로 구성된다. 우리학교의 자소서는 공통문항 3개와 자율문항 1개로 4개로 구성됐지만 이번 해부터 자율문항인 4번 문항이 삭제됐다.

논술전형과 정시모집전형은 전형 방법이 지난해와 동일하다. 그러나 논술전형의 경우 493명으로 모집인원이 지난해보다 감소했고 정시모집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이 증가해 정시비율이 늘어났다. 우리학교 입학사정관실 관계자는 "이번 해 수시모집의 특기자 전형 및 논술전형의 축소되고 정시모집 확대됨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특기자 전형은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이 있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전형이다. 지난해 우리학교는 해당 전형으로 △소프트웨어 특기자△수학·과학 특기자△외국어 특기자를 선발했으나 이번 해부터 수학·과학 분야의 특기자 전형을 폐지했다. 이어 우리학교는 2021학년도 입시전형의 특기자 전형 폐지를 공고했다. 우리학교 입학사정관실 관계자는 "2014년부터 교육부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특기자 전형에 대한 폐지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2021학년도부터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특기자 전형 폐지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해 우리학교 학생부교과 전형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특기자 전형 소프트웨어 분야와 외국어 분야로 축소 모집

학생부종합 전형 2단계 면접 시기 변화

◆다른 대학과 비교한 우리학교 입시제도

우리학교는 이번 해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합격여부에 수능점수의 영향력을 줄였다. 이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을 폐지하는 움직임은 다른 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 경우 이번 해 논술전형을 포함한 전 수시모집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앴다. 서강대학교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며, 특기자를 선출하는 알바트로스창의전형을 전면 폐지했다. 그러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일부 대학의 기조와는 반대로 △건국대학교△국민대학교△성신여자대학교는 이번 해부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또한 현재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서울 소재 대학은 △숙명여자대학교△이화여자대학교△중앙대학교△한양대학교 등이 있다.

특기자 전형을 축소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각 학교의 특기자 전형도 축소되는 추세다. 우리학교는 이번 해 특기자 전형 축소를 시작으로 다음 해 특기자 전형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는 다음 해 입시부터 일부 특기자 전형을 없애기로 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특기자 전형의 각 분야 모집입원을 감소시켰다.

◆대학입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난달 25일, 교육 관계 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 확대를 포함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이번 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감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쏠림이 높았던 대학이 적정하게 균형을 맞추도록 정시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앞으로의 대학 입학전형에서 정시모집 전형이 확대될 지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해인(사회·미디어 18)씨는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편법 및 불법 정황이 확인된 주요 13개 대학의 실태조사를 봤다"며 "정시모집 전형이 불공정한 입학을 방지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고 정시모집 전형 확대에 대한 의견을 드러냈다.

이번 달 11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리는 "기회균형선발전형 등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전형 비율을 높이면서 입시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학교는 수시모집 내 고른기회전형 등의 기회균형선발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우리학교 입시사정관실 관계자는 "모집인원 뿐만 아니라 지원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등 고른기회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우리학교를 망라해 대학의 입시제도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에 대해 우리학교 입시사정관실 관계자는 대학별 입학전형의 다양성을 강조했다. 동시에 "최근 정부가 이러한 대학의 다양성보다는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획일적인 대입제도 운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해부터 우리학교는 분석 및 연구기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입학연구팀을 만들었으며, 학령인구 감소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년간의 입시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배치했다. 관계자는 "입시정책이나 입학 홍보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방문해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입시제도에 대한 관심을 독려했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

생리 공결제를 향한 다양한 시선

우리학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여성건강권 및 모성보호 확대 요청과 단과대학 및 학생회의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생리공결을 유고결석 사유로 인정했다. 생리공결제는 여학생들의 생리 기간 중 생리통, 생리 증후군 등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하지만 생리공결제의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오남용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학교 생리공결제 실태와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학교 생리공결제 도입배경

우리학교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공결제를 도입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생이 생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관리에 대해 '병결' 혹은 '기타결석' 으로 처리하고 여성의 건강권 및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초 · 중 · 고교에 생리공결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후 대학 내 생리공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자 2017년 8월 31일 우리학교는 생리공결제 시행을 결정했다. 당시 학사종합지원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생리공결제가 꾸준히 안건에 올랐지만 악용 우려 등의 이유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학생들이 생리공결제를 원하고 있고 학생회에서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당시 총학생회가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리공결제 관련 설문조사엔 총 1361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는 △생리공결 신청 시 별도의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생리공결 신청 시 이틀 이상의 기간을 인정한다△생리공결 신청 시 교강사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은 학교 측에도 전달됐다.

◆생리공결제에 대한 논의

현재 우리학교 생리공결제는 학생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 첨부된 유고결석신청서를 작성해 담당 교강사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재학생들은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석 인정 횟수는 학기 중 2회이다. 또한 다른 유고결석계와 같이 교강사의 재량으로 진행된다. 한편 현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양립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생리공결의 교수 재량적 허용△생리공결제 연속적 신청가능△간단한 서류제출이다.

첫 번째로, 우리학교에선 생리공결제의 운용을 교강사의 재량에 맡긴다. 생리공결제 시행방침은 공식적으로 제도화됐지만, 이는 결국 교수의 재량에 따라 운용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디지털마케팅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선 생리공결제를 포함한 유고결석계는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은 "생리공결제가 제도화됐음에도 가끔 받아주지 않겠다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당연히 쓸 수 있는데도 눈치를 봐야 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생리공결제도 일종의 유고결석계에 속하기에 생리공결제만 운용방침을 다르게 한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밖에 다른 유고결석사유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입원△징병검사 및 예비군 훈련△우리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공무 · 행사 등이다.

두 번째로, 우리학교는 직전 생리공결제 신청 이후 차기 생리공결제 신청 사이에 기간제한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의 주장은 여성의 평균 생리주기가 28~30일이란 것을 고려할 때, 생리공결제 신청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은 "한 학기에 2번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연속으로 2번 제출해 출결을 보완하시는 학우 분들이 있다"며 "차라리 28일마다 한 번씩 쓰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로 숙명여자대학교(이하 숙명여대)에선 한번 생리공결제를 신청하면 다음 생리공결제는 15일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여성의 생리일수와 주기가 정확하지 않으며, 연속된 날짜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 생리공결제를 이용할 수 없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학교에선 특별한 서류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 첨부된 별도의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생리공결이 인정된다. 이에 외대학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결석 건에 대한 처방은 아니더라도, 심한 생리통으로 인한 산부인과 처방전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덧붙여 "확실한 병원진단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고 서류제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양대학교(이하 한양대)는 생리공결제를 신청할 때 병원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란 비판도 존재한다. 현재 많은 대학이 이러한 부작용을 인식해 생리공결 증빙서류제출을 없애거나 간소화하는 추세이며 한양대 역시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학교는 이미 지난해 제52대 총학생회 푸름의 선거공약인 '생리공결제 전산화' 의 시행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당시 총학생회는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의 생리날짜를 기재하게 하고 생리공결 사용을 원하는 수업을 선택하는 식으로 생리공결을 전산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문제들이 제기돼 총학생회는 제도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제도 보완의 시도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전처를 통해 생리공결제 방향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생리 공결제 도입

대표적으로 논의 되는 것은 △생리공결의 교수 재량적 허용 △생리공결제 연속적 신청 가능 △간단한 서류제출

숙명여대, 15일 이후에 차기 생리 공결제 사용 가능 한양대, 병원진단서 함께 제출해야 대학마다 생리공결 운영 다양해

"생리공결제 악용위험 있어도 꼭 필요해", "생리공결제 악용하는 학생들 많아 효용성 따져 존폐 결정해야" 학생들 의견도 다양해

◆다른 학교는 생리공결제를 어떻게 운영할까?

생리공결제 도입 이후 많은 대학이 시행과 폐지를 반복하며 제도 안착에 난항을 겪고 있다. 숙명여대는 이번 해 2학기부터 생리공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숙명여대는 우리학교와 같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학기 당 4회까지 인정해준다는 점이 다르다. 또한 '숙명포털시스템' 이란 학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전 유고결석 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 차기 신청이 가능하다. 고려대학교(이하 고려대) 또한 2007년부터 생리공결제를 도입하고 이를 유고결석계란 명칭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생리공결이란 이름으로 이를 따로 운용할 경우 해당 제도가 일부 학생만을 위한 것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었다"며 "생리도 유고결석계 여타 유고결석 사유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학생들이 학내 시스템에서 특정 수업 생리공결을 신청하면 해당 교강사에게 전달되는 식으로 제도를 진행하며 학기 4회 이내에서 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양대는 월 1회, 학기 5회 이하로 생리공결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병원 확인서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리학교와 차이가 있다.

한편, 서강대학교(이하 서강대)는 2007년 생리공결제를 시범운영했지만, 악용을 우려해 2008년 8월 폐지했다. 서강대 교무처는 "학생문화처 주관으로 세 학기에 걸친 생리공결제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반결석의 패턴과 차이점이 없다"며 "F학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리공결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학교(이하 성균관대)의 경우엔 생리공결제의 시행 여부 및 사용 가능 횟수 등을 모두 교강사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모든 학생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기에 병가의 일환으로 운용하고 교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운영할 경우 악용 사례가 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생리공결제에 대한 의견

생리공결제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의견 또한 다양했다. 외대학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은 "실제로 심한 생리통으로 인해 사용하는 학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브리타임을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에서 생리공결을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생리공결제를 악용하는 일부 여성 학우가 있다고 해도, 여성이 한 달마다 평균 5일이란 시간을 불편해 한다는 점을 감안해 생리공결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학생은 "주위에 생리공결제를 악용하는 학우들이 많다"며 "연휴 때와 연휴가 아닐 때의 생리공결제 이용률을 분석해, 효용성을 따져 존폐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생리공결제 시행에 대한 필요성을 고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지영 건국대학교 몸 문화연구소 교수는 "우리 사회의 학습권과 노동권 등이 모두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개편돼 있다 보니 여성의 신체나 인권 등이 좀처럼 고려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 생리공결제란 제도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여성 인권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리는 임신과 출산의 연장선으로 출산휴가처럼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며 "생리는 남성과 다른 여성의 신체적 특징 때문에 나타난다는 점을 인지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99migyong@hufs.ac.kr

「3.1 독립선언서」를 세계만방에 고하다!

HUFS 비정상회담

Deklaracja Niepodległości Korei

기미독립선언서 – 폴란드어 번역

특수외국어교육진흥원 · 외대학보 공동기획

번역
베아타 강 보구쉬
주한 폴란드 대사관
문화 · 공공 외교관

감수
최성은
우리학교 폴란드어과 교수

Ogłaszamy niepodległość Korei i wolność narodu koreańskiego. Niniejszym ogłaszamy niepodległość Korei wszystkim narodom świata, by zamanifestować zasadę równości ludzi i przekazujemy przyszłym pokoleniom, że na zawsze zachowamy słuszne prawa naszego ludu do samostanowienia.

Ogłaszamy to powołując się o poszanowanie naszej historii pięciu tysięcy lat i jednocząc lojalność dwudziestomilionowego narodu. Oznajmiamy to dla dobra stałego rozwoju wolności naszego narodu, poruszamy tę kwestię, aby kroczyć dopasowując się do sprzyjających czasów oraz korzystając z wielkiej okazji przebudowy świata bazującej na ludzkim sumieniu. Jest to polecenie nieba, wielki nurt czasów. Jest to sprawiedliwe obudzenie powszechnego prawa do życia całej ludzkości i nie ma żadnej rzeczy na świecie, która by zablokowała, stłumiła to.

Jesteśmy ofiarą polityki agresji i autorytaryzmu, które są reliktami przeszłości i po raz pierwszy w ciągu naszej kilku tysiącletniej historii, już od dziesięciu lat, jesteśmy pod uciskiem i doświadczamy cierpienia ze strony innego narodu. Jak bardzo nasze prawo do życia zostało zniszczone przez ten czas? Ile przeszkód stanęło na drodze naszego świadomego rozwoju? Ile szkód wyrządzono naszej narodowej godności i honorze? Ile okazji straciliśmy, kiedy mogliśmy się przyczynić do rozwoju światowej kultury naszą oryginalnością i innowacyjnością, które przez te lata nam odebrano?

Jeśli chcemy otrząsnąć się ze starych uraz, jeśli chcemy pokonać cierpienia dnia codziennego, jeśli chcemy wyeliminować niebezpieczeństwa przyszłości, jeśli chcemy rozwinąć nasze morale i oblicze państwa oraz sumienie przygaszonego i uciskanego narodu, jeśli chcemy rozwijać charaktery każdego z nas, jeśli nie chcemy przekazywać naszym biednym synom i córkom naszej wstydliwej i upokażającej rzeczywistości, jeśli chcemy dać naszym potomkom szczęście oraz wieczną i idealną pomyślność, to naszym pierwszym i najpilniejszym zadaniem jest zagwarantowanie niepodległości naszego narodu. Dwadzieścia milinów ludzi jest zdeterminowanychdo walki i dziś, kiedy uniwersalność ludzkości i sumienie czasów pomagają nam armią zwaną sprawiedliwością oraz bronią zwaną moralnością, idziemy naprzód i żadna siła nas nie zatrzyma. Cofniemy się, by zrobić plan, a wszystko nam się uda.

Nie jesteśmy tu po to, by oskarżać Japonię o naruszenie przez nią licznych poważnych umów zawartych od czasu Traktatu o przyjaźni i handlu z 1876 roku. Japońscy uczeni w szkołach, a politycy na co dzień w praktyce uważają nasze dziedziczone z pokolenia na pokolenie zajęcie, naszą pracę za część swojej kolonii, patrzą na nas, cywilizowany naród, jak na dzikusów, tylko aby poczuć przyjemność zdobywcy. Nie upominamy także Japonii za brak honoru, lojalności, tylko dlatego, że ignoruje nasze stare podstawy społeczne i wyjątkową naturę naszego narodu. Nie mamy czasu na szukanie winy u innych, kiedy sami jesteśmy zajęci samoobwinianiem się i pocieszaniem jednocześnie. Spieszymy się, by dokładnie i szczegółowo przygotować naszą teraźniejszość, nie mamy czasu, by go tracić na ukaranie przewinień przeszłych dni.

Nasze kluczowe zadanie na dziś, to odbudowa, a nie niszczenie innych. Zgodnie z nakazem naszego przytomnego sumienia, chcemy jedynie nakreślić nasze nowe przeznaczenie. Nie chcemy nikomu zazdrościć, nikogo bojkotować, odczuwając przejściowe emocje i dawne urazy. Naszym zadaniem jest poprawienie i zreformowanie dzisiejszych nienaturalnych, nielogicznych i niedostosowanych warunków, które zostały utworzone przez żądnych władzy japońskich polityków uwiązanych archaicznymi ideami i potęgą. Chcemy powrotu na drogę, na której panują naturalne, racjonalne i właściwe zasady. Wskutek aneksji dokonanej nie z woli narodu i przy niesprawiedliwym i nierównym traktowaniu, duszącym ucisku oraz hipokrytycznych i sfałszowanych statystykach, urazy naszego ludu stale, nieustannie pogłębiają się i na zawsze uniemożliwiają harmonijne istnienie dwóch narodów o sprzecznych interesach. Czy nie powinno być ogólnie znane, że najkrótszą drogą do wzajemnego błogosławieństwa i pozbycia się uraz jest naprawianie starych błędów za pomocą szybkiej i stanowczej determinacji oraz na przyjęciu nowej przyjaznej postawy opartej na prawdziwym zrozumieniu i współczuciu.

Zniewolenie siłą dwudziestu milionów ludzi przepełnionych urazami i gniewem nie będzie drogą do gwarancji wiecznego pokoju na Dalekim Wschodzie. Czterysta milionów Chińczyków także, pełniąc kluczową rolę w regionie i determinując bezpieczeństwo na Dalekim Wschodzie, czuje zwiększający się strach i zazdrość wobec Japonii. Rezultat tego będzie oczywisty – nieszczęsnym losem całego Dalekiego Wschodu będzie jego upadek. Dlatego też, niepodległość Korei przyczyni się do sprawiedliwej egzystencji i dobrobytu Koreańczyków, a jednocześnie pozwoli Japonii zejść ze złej drogi i wziąć niezbędną odpowiedzialność, jako kraj wspierający pokój na Dalekim Wschodzie. Niepodległość Korei uwolni Chińczyków od strachu i niepewności, o których nie mogą zapomnieć nawet we śnie. Ponadto, niepodległość Korei czyli pokój na Dalekim Wschodzie, jest istotną częścią, niezbędnym krokiem do pokoju na świecie i szczęśliwości całej ludzkości.

Jakże to wszystko może być tylko drobnym problemem związanym z naszymi emocjami? A! Oto przed Waszymi oczami otworzył się nowy świat, prawda? Minęła era siły, nadeszła era moralności. Świadomość moralna kształcona i szlifowana przez minione stulecia, dopiero teraz zaczęła oświetlać historię ludzkości nadzieją nowej cywilizacji. Nowa wiosna powraca na cały świat i nawołuje wszystko i wszystkich do powrotu. Jeśli miniona epoka to surowa zimnica tłumiąca oddech, to obecna epoka to czas rozkwitania sił witalnych i tętnic w pogodnym wietrze wiosennym i ciepłych promieniach słońca. Napotkamy szczęście płynące z nieba i z ziemi, płyniemy wraz z nowym prądem zmian i już nie musimy się wahać, nie mamy nic do stracenia.

Będziemy strzec naszego wrodzonego prawa do wolności, cieszyć się rozkwitającym życiem oraz wykorzystamy nasze bogate talenty kreatywności i stworzymy czystą, lśniącą kulturę narodową pod niebem wypełnionym wiosennym powiewem. Otrząśniemy się i powstaniemy. Sumienie jest z nami, prawda pójdzie z nami. Powstaniemy energicznie wszyscy młodzi, starzy, kobiety, mężczyźni z ciasnego i dusznego gniazda, Będziemy się cieszyć z całym wszechświatem, a nastanie radosne zmartwychwstanie. Duchy naszych dalekich przodków, choć niewidoczne, pomagają nam, energia całego świata chroni nas od zewnątrz i ten początek jest sukcesem. Po prostu, idziemy energicznie kierując się w stronę światła na naszej drodze.

Trzy obietnice

Po pierwsze, nasz dzisiejszy bunt wynika z żądania naszego narodu, aby przywrócić sprawiedliwość, człowieczeństwo, życie i honor. Okażemy ducha naszej wolności. Nie zejdziemy z właściwej drogi popadając w uczucia wykluczające innych ludzi.

Po drugie, każdy z nas bez wyjątku, aż do ostatniego tchu życia, będzie otwarcie głosił sprawiedliwe żądania naszego narodu.

Po trzecie, nasze wszystkie działania będą przestrzegać porządku, a postulaty i postawy będą uczciwe i sprawiedliwe.

1 marca 4252 roku od założenia państwa Gojoseon, 1919r.

Przedstawiciele narodu: Son Byong-hui, Kil Son-ju, Yi Pil-chu, Baek Yong-song, Kim Wan-gyu, Kim Byong-jo, Kim Chang-jun, Kwon Tong-jin, Kwon Byong-dok, Na Yong-hwan, Na In-hyop, Yang Sun-baek, Yang Han-muk, Yu Yo-dae, Yi Gap-song, Yi Myong-ryong, Yi Sung-hun, Yi Chong-hun, Yi Chong-il, Lim Ye-hwan, Bak Chun-sung, Bak Hui-do, Bak Tong-wan, Shin Hong-shik, Shin Sok-gu, O Se-chang, O Hwa-yong, Chong Ch'un-su, Choe Seong-mo, Choe Rin, Han Yong-un, Hong Byong-gi, and Hong Gi-jo

축구와 삼바의 나라, 브라질

남아메리카에 있는 브라질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면적이 넓으며 2억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백인△혼혈인△흑인△황인△브라질 원주민 등이 살고 있는 브라질은 대표적인 다인종 국가이며 포르투갈어를 공용으로 쓰고 있다. 더운 날씨에도 브라질 곳곳은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있다. 월드컵에서 5회 우승했고 제1회부터 본선에 연속 출전한 유일한 나라다. 이 밖에도 여러 명이 원무를 추거나 줄을 지어 행진하면서 추는 동작이 특색인 삼바가 유래한 나라이기도 하다. 삼바는 템포가 빠르고 매우 리드미컬한 삼바음악을 바탕으로 브라질 카니발의 흥분과 열정을 표현한다. 신 알리시 영서(사회 · 미디어 18)와 함께 브라질 '리우데자리우' (이하 리우)에 대해 알아보자.

▲리우에 위치한 예수동상의 전경

리우는 1960년까지 브라질의 수도였던 상징적인 도시에요. 세계 3대 아름다운 항구도시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상파울로에 이어 브라질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리우는 자연과 인공의 아름다움이 잘 어우러져 있어요. 무역항구가 있어 항만시설도 잘 정비돼 있습니다. 또한 상파울로와 더불어 브라질의 2대 문화 도시를 이뤄 리우엔 △리우 대학교△국립 박물관△국립 도서관 외에 많은 화랑과 극장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리우는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어요.

리우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를 꼽자면 '예수동상' 이 있어요. 예수동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팔을 일자모양으로 넓게 벌리고 서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는 브라질이 포르투갈로부터 독립한 지 100년 되는 해를 기념해 세워졌어요. 1926년부터 1931년에 걸쳐 공사가 이뤄졌고 신체 부분을 각각 따로 조각해 결합하는 방식으로 제작됐어요. 또 외관은 하얀 납석을 발라 마감됐어요. 2007년 7월엔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지정되기도 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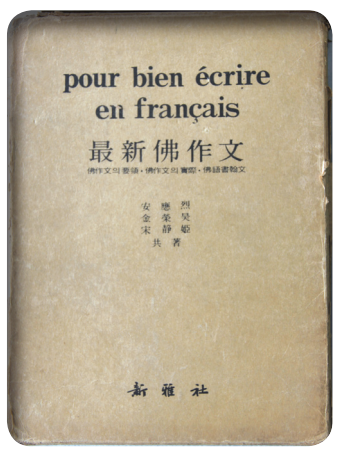
리우 남동쪽에 있는 '코파카바나' 역시 세계적인 관광지에요. 활처럼 완만하게 굽은 백사장 산책길을 따라 고급 호텔과 아파트 등이 늘어서 있죠. 이곳은 19세기까지 농업 지역이었지만, 그 뒤에 여러 상업시설을 갖춰 훌륭한 해안 휴양지로 손꼽히게 됐답니다. 특히 피파(FIFA) 비치사커 월드컵과 비치발리볼 대회 등 국제 경기도 여러 차례 개최됐답니다. 이번 겨울엔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곳, 리우에서 만나요!

조미경 기자 99migyong@huf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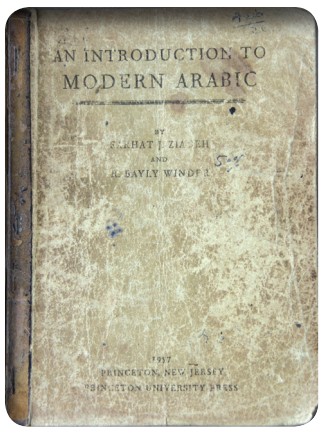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기록과 외대사

HUFS Global Archives ⑤

– 외국어 교육의 길을 개척하다 : 외국어 학과들의 초기 수업 교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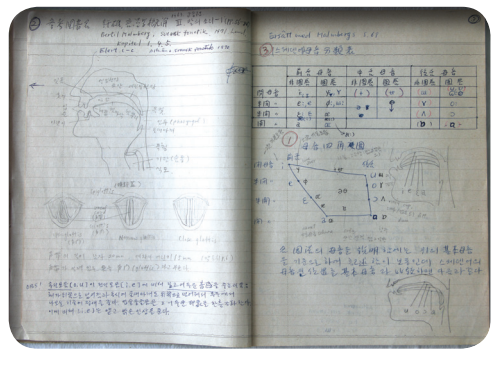


▲프랑스어 교육 교재(1970년대, 송정희 프랑스어교육과 명예교수 기증)



▲아랍어 교육 교재(1960년대, 이두선 아랍어과 명예교수 기증)

▲일본어 교육 교재(1980년대, 민성홍 일본어과 명예교수 기증)



▲언어학 강의 노트(변광수 스칸디나비아어과 명예교수 기증)

■기록물명 : 외국어 수업 교재 컬렉션
■생산연도 : 1960~80년대
■입수유형 : 기증
■유 형 : 박물류(교육 교재)
■입수처(기증자) : 변광수(스칸디나비아 어과 명예교수), 민성홍(일본어과 명예교수), 이두선(아랍어과 명예교수) 외

1954년 국내 최초의 외국어 전문 고등 교육기관으로 개교한 우리학교는 실용적 언어 교육을 표방하며 개교 초기부터 문교부 및 해당국의 도움을 받아 해외학자의 초빙과 어학 실습실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 어학 학습을 위한 교육 환경의 조성에 힘썼다. 또한 이후 세계정세와 국내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기존 국내엔 없었던 외국어 학과를 최초로 신설하는 등 외국어 및 외국학 교육을 이끌었다. 특히 1960~7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의 외교 · 통상 분야에선 중동 국가와의 수교나 제3세계 국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해 지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우리학교는 이들과 관련한 언어를 교육하기 위한 학과 설립과 시스템 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외국어 학과의 경우 우리학교에서 최초로 개설된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초창기 외국어 교육을 위한 언어별 적절한 교재와 사전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어려운 과제였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학교의 교수들은 수업 교재를 해당 국가에서 직접 구해오거나 대사관에 협조를 구해 얻는 경우도 있었고, 사전의 경우 학생들과 함께 직접 제작하는 등 교육 교재 개발을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초기의 노력이 바탕이 돼 우리학교는 외국어 교육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쌓아 올 수 있었으며, 현재까지도 국내 제1의 글로벌 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질 수 있었다.

본 기록물은 당시 우리학교에만 존재하는 국내 유일의 학과인 △아랍어과△이란어과△스칸디나비어과 들의 초기 원어 교재 컬렉션이다. 이러한 교재들을 통해 당시 우리학교가 주축이 돼 이뤄진 국내 외국어 교육의 방향과 변화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기록물은 우리학교 역사관 기획 전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록 및 사진 제공 : 역사관

대학생 주거난 속, 글로벌캠퍼스의 주거 환경은 어떠한가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는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에 위치해 있다. 모현읍은 지리적 요건과 교통편이 열악하다. 이러한 이유로 글캠 학생이라면 기숙사 또는 자취생활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대학 입학 후 주거 문제에 대해 고민해본 적 있다"는 문항에 80% 이상이 답할 정도로 현재 대학생들에게 주거는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글캠 학생들의 주거환경은 잘 조성돼 있는지, 학교나 지역사회에선 어떤 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글캠 학생들의 주거 실태

글캠에 재학하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조사한 결과 △가족과 거주△자취△학교 기숙사의 비율이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이에 따르면 전체 3분의 2 정도의 학생은 학교 기숙사를 이용하거나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상황이다.

실제 글캠 기숙사 홉스돔(HUFS Dorm)의 총 수용인원을 보면 2,240명으로, 글캠 전체 재학생 6,780명 중 3분의 1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 기숙사 내 학생 구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입생과 재학생의 비율이 절반이다. 최태경 홉스돔 학사운영팀장에 따르면 신입생이 50%이며 △2학년△3학년△4학년 재학생의 약 25% 이상이 글캠 기숙사에 수용된다.

글캠 근처에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은 주로 원룸을 이용한다. 글캠 근처의 한 부동산을 통해 알아본 결과 건물 자체가 학생 전용 원룸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 △책상△냉장고△세탁기△에어컨△침대△전자레인지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리고 원룸 계약 방식의 90% 이상이 월세이며 최소 6개월에서 1년 단위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원룸이 가장 많고 선호도도 가장 높다"며 "투룸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하지만 두 학생이 같이 살아야 하는 구조다 보니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원룸 선호 현상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학교 글캠 주변 대학가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소음이 심한 편은 아니다.

◆글캠 자취와 기숙사의 문제점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이나 자취를 선택하며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비용이다. 기숙사는 현재 △신기숙사 2인실△구기숙사 2인실△구기숙사 4인실로 나뉘며 입사비용이 각각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기숙사 노후 정도와 수용인원 기준에 따라 정해진 사생회비 만 원과 보증금 삼만 원을 제외하고 한 학기당 각각 △1,244,000원△930,000원△600,000원이다. 이에 대해 정향숙 홉스돔 학사운영팀 과장(이하 정 과장)은 "설립위원회에서 △인근 수도권 대학의 기숙사비△근처 사설 하숙 · 원룸△당시 은행 대출 금리 등의 조건을 고려해 비용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숙사 학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거론된 '학내 기숙사비 지원 제도'에 대해 "지금은 별도로 마련된 방안은 없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는 한 학기에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는 등의 고려할 점이 있어 시행을 못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정문과 가까운 원룸을 기준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가 45만 원이 평균이며, 이번 해 신축 건물은 보증금은 동일하지만 월세가 48만 원으로 3만 원가량 더 비싸다. 이 금액엔 대부분 인터넷 사용 요금을 포함한 관리비가 포함된다. 이에 입주자는 △수도△전기△가스 비용에 대해서만 본인이 사용한 만큼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한편 글캠 근처의 월세 시세에 대해, 자취를 하는 일부 학생은 "집주인들이 담합을 해 월세를 동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 부동산 관계자는 "들어본 적 없다"며 "집주인이 계약을 할 때 한 명씩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본 적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모현읍의 월세가 높다고 생각할 순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다른 지역까지 관할하는 것은 아니라 시세를 잘 알진 못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자녀의 자취방을 계약하러 다녀본 학부모 말에 따르면 이곳의 주거비용이 비싼 편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경우 방학 기간을 빼고 10개월만 계약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모현읍은 그렇지 않아 비용 측면에서 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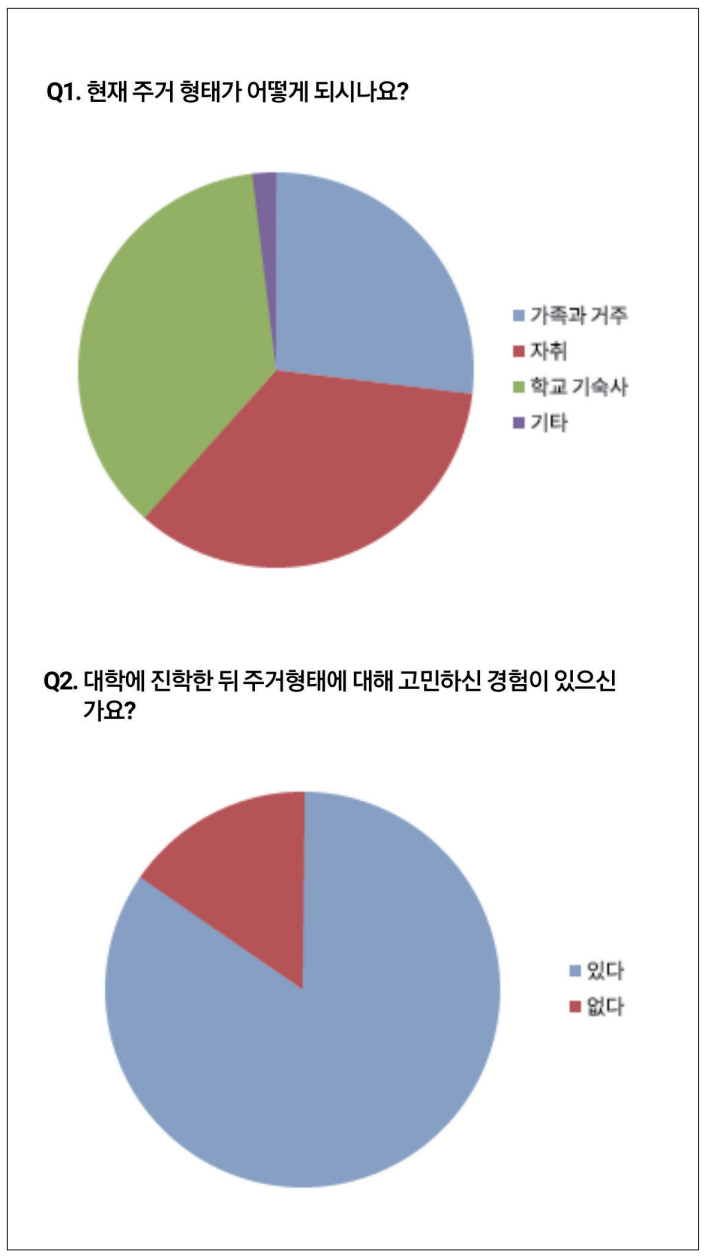
모현읍에서 자취를 하는 일부 학생들은 대학가인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상권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박미선 용인시청 청년복지팀장(이하 박 팀장)은 "현재 용인시는 '캠퍼스시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창업 육성△주거 안정화△상권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팀장은 "활력 있는 대학가 조성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용 외에도 △청결△통금시간△수용 인원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먼저 기숙사 청결 문제와 관련해 진호일 홉스돔 학사운영팀 과장(이하 진 과장)은 "학생들이 퇴실하면 전문 업체가 한 번씩 청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숙사생이 머무는 동안엔 스스로 청소하는 것을 기숙사의 방침으로 두고 있지만 공부하는 학생임을 고려해 전문 업체를 쓰고 있다"며 "하지만 기숙사실 내의 가구가 붙박이장이다 보니 일일이 청소를 하는 일이 쉽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점으론 기숙사 통금 시간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현재 홉스돔의 통금시간은 새벽 한 시다. 이후 오전 다섯 시 반에 다시 문이 열린다. 이러한 현 제도에 대해 한 학생은 "주말에 본가에 다녀온 뒤 통금 시간에 맞춰 들어오기가 힘들다"며 주말만이라도 통금 시간을 없애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진 과장은 "현재 통금 제도를 조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진 과장은 "경비원분들의 근무 시간이 한정돼있는 상황에서 통금을 없앤다면 관리가 쉽지 않으며 기숙사생 중에도 새벽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원치 않는 학생이 있을 것이기에 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유지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행될 레지던셜 컬리지 제도로 인해 기숙사 입사가 현재보다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정 과장은 "재학생 입사 비율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기존 신입생 비율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해명했다. 또한 기숙사 증축 계획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일단 학교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하반기엔 기숙사에 공실이 발생한다"며 "이러한 문제는 학교 운영에도 부담이 되며 아직 기숙사 설립 당시의 대출을 다 해결하지 못했다"고 기숙사 증축 계획 실행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기숙사가 여러 사람이 사는 공간인 만큼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내고 청소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남겼다. 진 과장은 "학교생활이나 개인적으로 고민이 있으면 △사감 선생님△상담 선생님△직원들한테 스스럼없이 다가와 상의를 하며 주어진 환경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외대학보 설문조사 결과

▲우리학교 글캠 기숙사 전경

◆현 제도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박 팀장에 따르면 용인시는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의 주거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다음 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협업해 '대학생-어르신 주거 공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측은 이 사업을 통해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는 어르신 가구 중 집의 일부를 관내 대학생에게 제공할 의향이 있는 가구를 발굴할 예정이다. 동시에 용인시는 저렴한 거주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의 신청을 받아 이들을 연결한다. 박 팀장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대학생은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의 50% 정도 저렴한 임차료로 주거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용인시는 이번 해 1월 10일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대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청년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용인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장기적인 침체기로 인해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진학과 동시에 부채를 보유한다. 청년들이 빚을 지는 원인은 △교육비△주거비△생활비가 각각 △43.8%△36.5%△28%를 차지했다. 한편 용인시는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학교 글캠 학생들의 주거환경도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허지나 기자 99_jina@hufs.ac.kr

폐지가 능사? 우리나라의 폐지 돌림노래

이번 달 3일, 서울대학교(이하 서울대)는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의 딸에 대한 장학금 특혜 관련 논란 이후 2020년 1학기부터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측은 정치적 이해관계와는 별개로 원래부터 계획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대학이 최근 조국 일가 논란에 직접 연관된 와중에 강행된 개혁이라는 점에서 일각에선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 처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는 비단 서울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제기됐던 문제의 관행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 폐지와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 내정 간섭 논란 이후 기무사 해체 등 최근 사례만 봐도 우리나라의 일방적인 조직 해체 및 폐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의 서울대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 행정처는 문제 진화에 나섰다. 서울대 관계자는 "조국 일가 논란이 발생하기 이전인 7월부터 계획했던 개정안으로 절차대로 진행한 개혁"이라며 "정치적인 이해요소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성적 장학금 폐지는 서울대가 처음이 아니다. 고려대학교도 2016년 성적 장학금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대의 조치는 장학금 수혜에 직접적 이해관계자인 학생들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다는 점과 장학금 특혜논란으로 세간의 이목이 쏠린 시기에 급작스러운 장학금 폐지를 결정한 점에서 고려대 장학금 폐지 때와는 상이하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숲에 장학금 폐지안을 다룬 많은 글이 올라왔다. 또한 '조국 일가를 의식한 독단적인 개정에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본다' 는 댓글이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았기도 했다.

◆개편방안

○교내 장학금 지급방식 변경(안)

구분		현행		변경(안)	
등록금 장학금	성적우수	신입생 성적우수 장학금		기존과 동일	
	맞춤형 장학금	본부 선발	소득 8분위 이하 차등면제	본부 선발	SNU장학금(가칭)으로 일원화 - 국가장학금과 연계하여 소득 8분위이하 등록금 전액 지원
		대학 선발	성적우등 장학금 (전액)		
			성적우수 (10%~전액)		
			저소득 (10%~전액)	대학선발	긴급 구호 장학금(신문고(가칭)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소득분위 0~1분위)		선한인재장학금 대상인원 증원 또는 월정액 확대	
		근로장학금 (각 대학 등록예정인원의 3%)		근로장학생 배정인원 증원 또는 근로장학금 시급 증액	
		해외수학 및 기타		기준과 동일	

*단,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자로서 분위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함.

<참고> **개편안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

구분	장학 구분	현행		변경(안)		비고
		내역	예산	내역	예산	(증감)
등록금 지원	신입생 성적우수	등록금 전액 면제	1억	등록금 전액 면제	1억	-
	재학생 성적우수	등록금 10%~전액 면제	66억	-	-	-66억
	저소득층 지원	등록금 40%~전액 면제	33억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전액 면제	73억	40억
	<신규> 긴급구호 지원	-	-	등록금 일부~전액 면제	4억	4억
생활비 지원	선한인재	소득분위 0~1분위	26억	소득분위 0~2분위	36억	10억
	근로	등록예정인원의 3%	30억	등록예정인원의 5% 시간당 임금 약 20%인상	42억	12억
	기타	해외수학 및 기타	11억	해외수학 및 기타	11억	-
계			167억		167억	-

▲서울대 장학금 개정안

◆허울뿐인 보여주기 행정 처분, 우리나라 폐지 잔혹사

졸속 행정 논란은 비단 서울대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사후 대책은 해양경찰청(이하 해경) 해체였다. 당시 정부는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해경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해경을 해체하고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졸속 대처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처리된 해경 해체가 곧이어 해안경비의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2017년 해경이 다시 설립 될 때까지 3년이란 시간 동안 해양 범죄 적발 건수는 2013년 기준 5만 718건에서 2015년엔 2만 7,031건으로 감소하며 실적은 절반으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해경 해체란 파장은 자연스레 세월호 사건 중 핵심 사안인 참사 관련자의 책임추궁마저 흐지부지하게 만들었다. 당시 해양경찰청장이었던 김석균 전(前) 청장을 포함한 해경 관계자들이 별다른 징계 없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나아가 해양 보안에 공백기가 생겨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졸속 행정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발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간인 사찰 및 계엄령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맞은 기무사에 대해 강력한 개혁을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무사가 국가안보지원사령부로 간판만 바꿨을 뿐 조직과 구성원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에서 허울뿐인 개혁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여론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군대의 정치적 개입을 사전에 방지할 개선안 마련을 기대했으나 정부의 대처는 전 정부와 다름없는 보여주기 식 행정 처분에 그쳤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 기무사의 사령관이었던 이석구 중장의 징계가 직위해제 선에서 마무리됐고, 논란이 된 사령관의 대통령 독대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개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사라지지 않는 보여주기식 관행, 원인과 해결책은?

우리 사회의 졸속 처리 관행은 꾸준히 지적되던 문제였다. 특히 국가조직에서 이러한 관행은 비일비재했다. 정치학자들은 "5년 단임제인 현행 상, 정부가 한정된 임기 내에 정치적 성과를 냄으로써 정치적 지지층을 공고히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때마다 뒤바뀌는 치열한 정국 속에 집권당이 이전의 정부와 확실한 차이를 보여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정치권에 팽배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 정권은 전 정부와 정반대인 탈원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원전을 아무런 대안 없이 폐쇄한 바 있다. 이는 전력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전기료 할인 혜택을 없애 국민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는 촌극을 벌여 야당과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재묵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개혁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문제가 발생한 조직의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해 순기능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게 협의를 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의논과 합의를 통해 도출된 개혁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경 해체 후 재창립과 같은 졸속 행정보단 훨씬 더 이롭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재묵 교수는 이번 서울대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이번 서울대의 행정 조치는 대 · 내외적 갈등과 의혹을 규명하지 못한 채 구성원 간 갈등만을 증폭했다"며 "해당 사건 이해관계자인 △학생△교수△행정처가 모여 장학금 위원회를 조직하고 나아가 공론화를 통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학교 장학금 폐지 논란은 학교에 국한된 내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반영한 페르소나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한층 성숙된 개혁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으로 한층 진일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을지 서울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상우 기자 99sangwoo@hufs.ac.kr

우리학교 동아리를 찾아라!

흅 소 사 이 어 티

와인동아리 '아상블라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와인을 즐기는 동아리가 있다. 다양한 와인을 맛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아상블라주 동아리원들은 와인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만남에 의의를 두며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고수형(영어·EICC 17) 씨를 만나 아상블라주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다.

▲아상블라주 동아리원

▲아상블라주의 활동 모습

Q1. 아상블라주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상블라주는 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와인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끼리 두루 모여 와인을 마시고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저희는 함께 다양한 와인을 마시면서 자신의 기호를 찾고 친분을 쌓기도 합니다.

Q2. 이 동아리를 들어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평소 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양한 와인이 각자 독특한 향과 맛을 갖고 있어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학교에 와인을 다루는 중앙동아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들어오게 됐습니다.

Q3. 이 동아리에선 어떤 활동을 하나요?

매주 두 가지 이상의 와인을 테이스팅(tasting)합니다. 또 주제를 정해 조별로 발표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끼리 와인과 관련된 지식도 알아갑니다. 이처럼 저희는 다양한 나라의 와인을 맛보며 자신의 기호를 찾아가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Q4.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동아리 엠티와 1기 동아리 선배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엠티를 통해 어색했던 동아리 부원들이 서로 더 잘 알게 됐고 사이가 끈끈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와인 업계에 종사 중인 아상블라주 1기 선배가 프랑스 와인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그 후, 동아리원들과 같이 테이스팅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점에 대해 여쭤본 후 다양한 지식을 얻어갈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5. 활동 중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아직 힘든 점은 없습니다. 많이 모이면 30명 정도의 학우들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합니다. 반대로 적더라도 소소하게 동아리방 또는 강의실에 모여 좋은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회장으로서 아직 힘든 활동은 없었습니다.

Q6. 학생들에게 와인을 추천한다면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와인에 대한 기호는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와인을 처음 접해보는 사람에게 저는 '모스카토 다스티'라는 스파클링 와인을 추천합니다. 이 와인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을 뿐만 아니라 선물로도 많이 쓰입니다. 맛이 달기 때문에 누구나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병을 얼음을 넣은 차가운 물에 칠링(chilling)*해 마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아주 차갑게 마셔야 그 본연의 맛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Q7.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동아리의 활동을 보고 여러 와인 업체에서 시음과 강연을 해주겠단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자세한 계획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고려대△경희대△시립대 등 다른 학교 와인동아리와도 연합해 모임을 할 것입니다.

*칠링(chilling) : 와인을 냉각시키는 것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주 52시간 근로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할까?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휴가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은 연간 2천 시간이 넘는다. 최근 정부는 주 68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주 52시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이 연구개발이나 이익 추구에 걸림돌이 된다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선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이 줄어든다는 단점을 지적했다. 이에 제도가 차등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정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다.

이정 우리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Q1-1. 주 52시간 근무제란 무엇인가요?

지난해 2월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일주일간 평일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평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갑자기 주문량이 많아진다거나 날씨가 좋지 않아 다음 날 작업하는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일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무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 기업의 경우 하루에 2시간 이상 연장근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난해까진 주 5일 근무제였지만 노사가 합의한 경우엔 주말도 근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6월까진 기업에서 직원들한테 68시간 근무를 시키더라도 특별히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체계적으로 장시간 근무를 지양하고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됐습니다. 직장인에게 직장과 가정생활의 조화는 중요합니다. 이에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일차적으로 주말에 허용되던 16시간의 근무를 금지한 것입니다.

Q1-2.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는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과 공기업의 경우엔 근로시간 단축이 곧바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0명에서 300명 미만인 기업의 경우 다음 해 1월부터 적용되고 5명에서 5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엔 2021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Q2. 이 법안이 만들어지기 전엔 주 68시간 근무제였는데 어떤 목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됐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노동개혁엔 △최저임금 인상△정규직 전환△청년 고용 창출△근로시간 단축 등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는 선거공약이었어요. 동시에 이는 이번 정권의 주요 지지세력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죠. 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는 방향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근로시간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만 하면서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있던 건 아니었더라도 과도한 근로로 인해 과로사나 우울증에 걸린 직장인 등의 문제는 많았어요. 이처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결정적인 동기는 현 정권의 선거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공기업과 대기업 근무자의 경우 원래 정시에 출 · 퇴근을 했고 연장근무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입장에선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좋습니다. 늘어난 여가 시간에 본인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고 지인들과 시간 보낼 수도 있으니까요. 공기업과 대기업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정규직이며 월급제이기에 임금이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기업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임금이 줄어들어요. 이에 같이 근로자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무를 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받기에 오히려 더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일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으로
일주일 최대 근로 52시간 허용

제도 도입의 주 원인은
현 정권의 선거 공약

보완을 위해
근무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

이런 상황에서 강제로 연장근무에 제재가 가해졌기에 일부 근로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모두에게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부정적이죠. 최저임금은 올리고 근로시간도 단축하게 돼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Q4-1.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 상황은 어떤가요?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기업은 이미 시행 중이죠. 다만 엄격하게 하지 않고 일종의 유예기간을 두는 중이에요. 이에 아직은 제도를 위반하더라도 형사 처벌까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 처벌이 강화되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기업의 범위가 넓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현재는 기업과 근로자도 모두 만족보단 불만족이 더 많은 실정이에요.

Q4-2. 지난 7월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위해 일부 분야에만 특별연장근무를 허용했는데, 왜 그 분야에만 허용한 건가요?

국가의 정책 시행엔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재해나 재난인 상황에선 예외가 발생하죠. 만약 자연재해 때문에 전기가 끊기면 한국전력공사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생명과 의식주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번 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무역 전쟁으로 정부는 특별연장근무를 결정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재해나 재난에 버금간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65년 한일행정협정 이후 일본과 최악의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핵심 부품 소재인 불화수소 등이 일본에서 수출을 제한받고 있어요. 수출규제 품목을 국산화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수십 년 걸쳐 개발한 것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도체 산업에 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무를 허용했다고 볼 수 있죠.

다른 예외론 운송업이 있습니다. 연말이나 연휴 전엔 갑자기 물량이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에도 예외 없이 근로시간에 규제를 가하면 운송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응급실과 같은 특수한 업종도 근로시간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요.

Q5. 주 52시간 근무제가 앞으로 보완돼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흔히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이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 기업에선 직원을 그만큼 고용하지 않아요. 먼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생산성이 향상돼야 합니다. 10시간 일하던 걸 8시간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한시적 인가연장근로△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먼저 '탄력근무제'란 업무의 성수기와 비수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비수기와 성수기가 교차할 때 근무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방법이에요. 비수기엔 일찍 퇴근해 근로시간을 줄입니다. 반면 성수기엔 근로시간 늘려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죠. 법정 근로시간이 평균적으로 맞는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3개월을 한 주기로 해서 근로시간의 평균을 맞추면 됩니다. 이 때문에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월급은 항상 같게 됩니다.

'선택근무제'란 출퇴근 시간을 근무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이 동탄이고 회사가 이문동인 직장인의 경우 혼잡한 출퇴근 시간을 피해 늦게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근무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선 삼성이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직원들은 개인개발이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의 예시는 일본 원자재 수출규제로 인해 일부 분야에 있어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한 사례입니다. 한편 △대기업 임원△대학교수△의사△변호사 등 연봉 1억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 적용을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그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든 근로시간에 규제를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과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기에 그들에겐 근로시간 규제가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보완될 점은 준비가 덜 된 중소 영세기업을 위해 시행시기를 더 늦추는 것입니다. 또한 탄력근무제를 혼합해 도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외국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탄력근무제와 혼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계에선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이야기하며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조하영 기자 99young@hufs.ac.kr

뒷담화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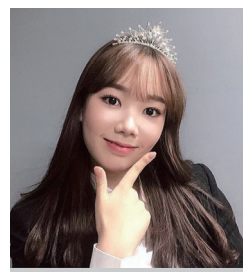
바다에 불을 비추는 등대

학내 언론은 어두운 바다에 불을 비추는 등대와 닮았다. 이들은 등대처럼 어둠 속 묻혀 있던 사실에 빛을 비춰 모두에게 알리고 때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히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등대와 닮아 있다. 학보사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학보사 기자 또한 늘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는 등대지기와 같은 자세를 지녀야 한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 학보사 임기에도 어느새 끝이 다가왔다. 누군가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학보사 기자로서 활동하며 배운 점을 한 가지만 꼽아보라고 하면 '책임감' 이라고 답하고 싶다. 학보사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맡은 바에 책임을 다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다. 생각보다 책임엔 대가가 필요했고 그 대가엔 고통이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진감래(苦盡甘來)' 란 말이 있듯이 이로 통해 비로소 끝까지 함께 해 준 이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의 결실은 모든 걸 딛고 견뎌낸 자만이 가질 수 있기에 귀한 법이다.

외대학보는 대학 생활의 시작을 함께 했기에 더욱 소중하고 뜻 깊다. 하지만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여정이었다. 돌아보면 새로움이 익숙함으로 변하기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았다. 당시엔 △아쉬움△억울함△슬픔과 같은 감정에 치우치기도 했다. 그러나 멀리 와서 거리를 두고 보니 덕분에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단 생각이 든다. 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됐다. 외대학보란 울타리 안에서 학보사 기자가 아니었다면 할 수 없었을 다양한 경험을 했고 소중한 인연들도 만났다. 그리고 이처럼 값진 열매는 앞으로 생길 일들에 훌륭한 밑거름이 되리라고 믿는다.

모든 일은 처음과 끝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정들었던 학보사인 만큼 멋진 시작에 어울리는 끝을 준비해야 할 때가 찾아왔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등대지기의 마음가짐을 잊지 않아야한다는 사실을 되새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등대에 불을 밝히는 등대지기처럼 끝까지 맡은 일을 해내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마무리가 아닐까 싶다. 기억 한 켠에 지워지지 않을 추억을 만들어 준 학보에 고마움을 표하며 글을 마친다.



안효빈 부장

문학칼럼 [문학 겉핥기]

전하지 못한 마음들 [뮤지컬 '그날들'을 보고]

뮤지컬 '그날들' 은 1992년과 2012년의 청와대 경호실 내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에 2012년과 1992년의 이야기가 함께 진행된다. 1992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고 지켜가며 살아가는 틀에 박힌 성격을 가진 정학은 청와대 경호원이 된다. 그리고 그 곳에서 자유분방한 성격을 지닌 무영을 만난다. 자신과 정반대의 성격을 갖진 서로를 보며 신기해하던 것도 잠시 둘의 사이는 가까워진다. 우정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정학과 무영은 첫 임무를 지시받는다. 그들의 첫 임무는 바로 한중 수교를 앞두고 신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정학과 무영은 임무를 수행하며 아무런 정보도 없는 여인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갔고 그들은 점차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무영은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여인에게 표현한다. 이처럼 여인에 대한 무영의 사랑이 커져가는 가운데, 정학과 무영은 '왜 정부가 필사적으로 여인을 보호하려 했는지' 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 그 이유는 여인이 바로 국가기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정부는 밝혀져선 안 되는 비밀을 알고 있는 여인을 해치려한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정학과 무영은 위기에 처한 여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여인을 사랑했던 무영은 "그녀를 지키겠다"는 말만 남긴 채 여인과 함께 사라지고 깊은 우정을 맺었던 정학은 사라진 무영을 그리워한다.

이후 20년이 흐른 2012년,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가 진행된다. 어느덧 경호부장이 된 정학은 "대통령의 딸 '하나' 와 수행 경호원 '대식' 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정학은 이를 들으며 20년 전 사라진 무영과 여인을 떠올린다. 하나와 대식의 행방을 찾아 백방으로 뛰던 정학은 무영의 흔적을 발견한다. 이 흔적을 토대로 정학은 2012년과 1992년 사건의 실마리를 동시에 풀어나간다.

뮤지컬 '그날들' 은 우정과 사랑이란 감정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낸다. 관객은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기 위해 희생할 준비가 돼 있었던 무영과 사라진 무영을 그리워하는 정학을 보며 사랑과 우정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다. 이 뮤지컬은 '사랑과 우정의 감정을 마음껏 나누며 현재를 살아가라' 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바쁜 일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거나 혹은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혹은 '고맙다' 라는 말을 민망해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만큼 자기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주는 것은 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 뮤지컬은 내내 관객에게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진심으로 다해 표현하라' 고 말한다. 이처럼 아직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전달해 보는 것은 어떨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은 '그날들' 이 모여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김나현 기자 98nahyuuuny@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운명은 그저 운명으로 [영화 '김종욱 찾기'를 보고]

강한 책임감과 융통성 없는 성격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기준' 은 우연한 기회로 '첫사랑' 이란 사업 아이템을 생각한 후 '첫사랑 찾기 사무소' 를 개업한다. 한편 인도 행 비행기 안에서 멀미로 고생하던 지우는 옆자리에 앉은 남자인 '종욱' 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인도에 도착한 지우는 종욱을 호텔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 이후 둘은 같이 여행을 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지만 기차에서 헤어진다. 그 뒤 한국으로 돌아온 '지우' 는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를 받는다. 하지만 마음 속에 첫사랑 종욱을 향한 감정을 갖고 있던 지우는 그의 프로포즈를 거절한다.

이후 지우는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시간이 지나 기억조차 잘 나지 않는 첫사랑을 찾기로 결심한다. 종욱에 대해 지우가 갖고 있는 정보는 김종욱이란 이름이 전부였다. 그러나 기준은 치밀하고 꼼꼼하게 김종욱 찾기에 나선다. 결국 기준과 지우는 전국의 김종욱을 함께 찾아 나선다. 종욱을 찾아 나선 여정을 통해 기준과 지우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간다. 그러던 중 기준은 지우의 다이어리 속 종욱의 주민등록증과 사진을 발견하고 지우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진다. 이에 지우는 의도적으로 찾지 않은 사실을 고백한다.

그렇게 지우의 '첫사랑 찾기' 가 끝나갈 때쯤 기준의 사무실엔 인도에서 만난 첫사랑을 찾아달라는 종욱의 전화가 걸려온다. 기준은 지우에게 종욱이 한국을 떠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지우는 공항으로 달려간다. 지우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깨달은 기준은 그를 따라 공항으로 달려가지만 종욱과 지우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고 돌아선다. 이러한 기준의 모습을 본 지우는 기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며 영화는 마무리 된다.

소위 '첫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 는 말이 있다. 첫사랑은 누군가에겐 마음 아픈 과거로, 또 누군가에겐 아직 설레는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영화에서 기준은 첫사랑을 찾기 두려워하는 지우에게 "끝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라는 조언을 한다. 영화는 첫사랑을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지우의 모습을 통해 지나간 추억 속의 사랑보단 앞으로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우리는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타이밍이 만든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타이밍이 없다면 사랑은 이뤄지기 어렵다. 인연을 운명으로 만드는 건 짧은 그 한순간이다. 하지만 타이밍이 있어도 누군가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이 영화를 통해 첫사랑 그리고 사랑의 순간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란다.

최민선 기자 99minsun@hufs.ac.kr

1037호 학보를 읽고

깜박이 없는 10월의 추위, 추위와 아픔에는 깜박이가 필요하다

허진하(사회 · 미디어 18)
서울캠퍼스 독자위원

말 많고 탈 많았던 10월이 지나갔다. 이번 1037호 외대학보는 '총장과의 대화' 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보여줬는데, 그중 학생들이 크게 들고일어났던 권력형 성폭행 가해 A교수 장기근속포상 철회 요구에 대한 학교와 총장의 답변을 확인할 수 있었다. A교수가 학생들의 반발에도 학교가 포상을 결정한 이유를 밝히며 학생들이 제시한 규정 개정안을 참고해 규정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보며 학생들이 여태까지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 답답했던 부분들을 해소시켜 주었다.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학교의 홍보물 등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참석하지 못해 그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고마운 기사였다. 또한, △글로벌캠스마트도서관 리모델링 소식△글로벌캠 설립자 친일파 논란으로 인한 설립자 동상 논란에 대한 학교 입장△서울캠과 글로벌캠의 성적 장학금 기준 논란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들을 수 있어 이번 기사를 통해 두 캠퍼스 간의 오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로 악플로 인한 한 연예인의 죽음 이후, 올바른 여론 형성에 관한 기사는 시기적절했고 다룰 필요가 있는 기사였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이나 카카오 규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설리의 죽음 이후 악플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다방면에서 시도한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또한 법적 제도들의 결과의 방향성을 분석 후, 언론사와 대중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제고했다. 이를 통해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자신은 어떻게 해왔는지' 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 것 같다. 한편, 언론과 대중들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중요하게 다룬 만큼,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을 인터뷰함으로써 대중들의 인식 변화나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면 조금 더 풍부한 기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독자위원회를 하면서 얼마나 기자들이 학교 소식을 찾아 발로 뛰며 교수님을 인터뷰하고 취재를 하며 고생하는지를 느꼈다. 12월 호만을 남겨둔 지금, 우리학교 학생 중 한 명으로서 이번 해 수고해준 기자들에 대해 박수를 보내며 마지막까지 멋진 결과물을 보여주리라 기대의 메시지를 남긴다.

1037호 학보를 읽고

의식의 피로현상

천혜진(인문 · 철학 18)
글로벌캠퍼스 독자위원

사람의 후각은 금방 마비된다고 한다. 고약한 악취 속에서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진다. 이를 '후각 피로현상' 이라고 한다. 하지만 때로 이러한 현상은 후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도 나타난다. 의식했던 문제들에 점점 둔감해지고 마비된다. 마치 코를 찌르는 화장실 냄새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이번 외대학보 1037호는 교내에서 나타나는 의식의 '피로현상' 을 지적한다. 양 캠퍼스의 정기총회 정족수 미달이 이에 대한 방증이다. 7면의 기사에선 질의응답에서의 무의미한 시간 소요와 갑작스러운 장소변경을 무산원인으로 짚었지만, 애초에 이러한 변수로 무산될 수 있는 현실을 꼬집은 것으로 느껴졌다.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장학금△등록금△건물 통제 등의 문제뿐 아니라 △총장직선제△교원징계위원회 학생참여△포상규정 개정 등 학교의 민주화를 위한 굵직한 논의를 담아낸 이 기사는 교내 주요문제에 둔감해진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린다.

'총장과의 대화' 를 다룬 심층기사에선 '기득권의 피로현상' 을 전달한다. 학생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오랜 기간 재직했다는 이유를 들며 1년을 제한한 후 포상의 대상에 포함했다는 총장의 답변이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교원징계의 폐쇄성이란 문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태도가 아닌 현행법을 내세우며 제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답변을 전달한다. 또한 총장직선제가 아직 단순한 화젯거리란 발언과 설립자의 친일논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고수하는 답변은 수면 위로 떠 오른 변화와 문제의식을 묻어두려는 학교 기득권의 '피로현상' 을 대변하고 있다. 총장과의 대화는 다른 캠퍼스일 경우 참여가 힘들고, 더욱이 글로벌캠퍼스는 시작 시간이 일러 9교시까지 수업이 있는 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논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학보가 교내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싶다.

대체로 이번 1037호는 기사의 주제와 내용은 매우 알찼으나 기사의 배치나 구성에 아쉬움이 느껴진다. 우선 '정기총회' 기사가 '총장과의 대화' 기사보다 앞 순서에 있었다면 이해가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학생들 요구사항의 맥락과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돼야 학교 측 답변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언론' 에 대한 기획기사에선 그래프를 통해 설문조사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는 있었으나, 크기가 과도하게 크고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 오히려 글의 가독성이 떨어지고 시선이 분산됐다. 기사의 배치와 자료의 구성을 보완한다면 독자의 이해도와 학보의 가독성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학보를 발행하기 위해 정성을 쏟는 외대학보의 모든 기자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빈의자

국 · 부장 고정칼럼

11월과 대학입시

나태주 시인의 '11월' 이란 시 중엔 11월은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 필자에게도 11월은 그런 시간이다. 이번 해를 돌아봤을 때, 새해부터 많은 시간이 멈출 새도 없이 빠르게 흘렀으며 현재 한 해의 마무리만이 남아있다. 또한 많은 주변 사람들은 다음 해에 대한 계획을 차근차근 짜고 있다. 괜히 싱숭생숭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11월엔 영어 듣기 시간을 피해 비행기 시간이 변경될 정도로 아주 큰 국가 시험인 대학 수학 능력 평가(이하 수능)가 있다.

이번 2020학년도 수능은 이번 달 14일에 있었으며 일각에서 국어와 영어 과목은 대체로 쉽고 수학 과목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험생들은 12년 동안, 혹은 그 이상 공부했던 것을 열심히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시험을 봤을 것이다. 수험생들은 수능이 끝난 후에도 바로 입시에서 해방되기보단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형을 찾아 다닌다. 고액의 컨설팅을 받거나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등 어느 상황에서든 합격자 발표가 나기 전까진 초조한 겨울을 보내게 된다. 수능을 보는 게 입시의 끝이 아닌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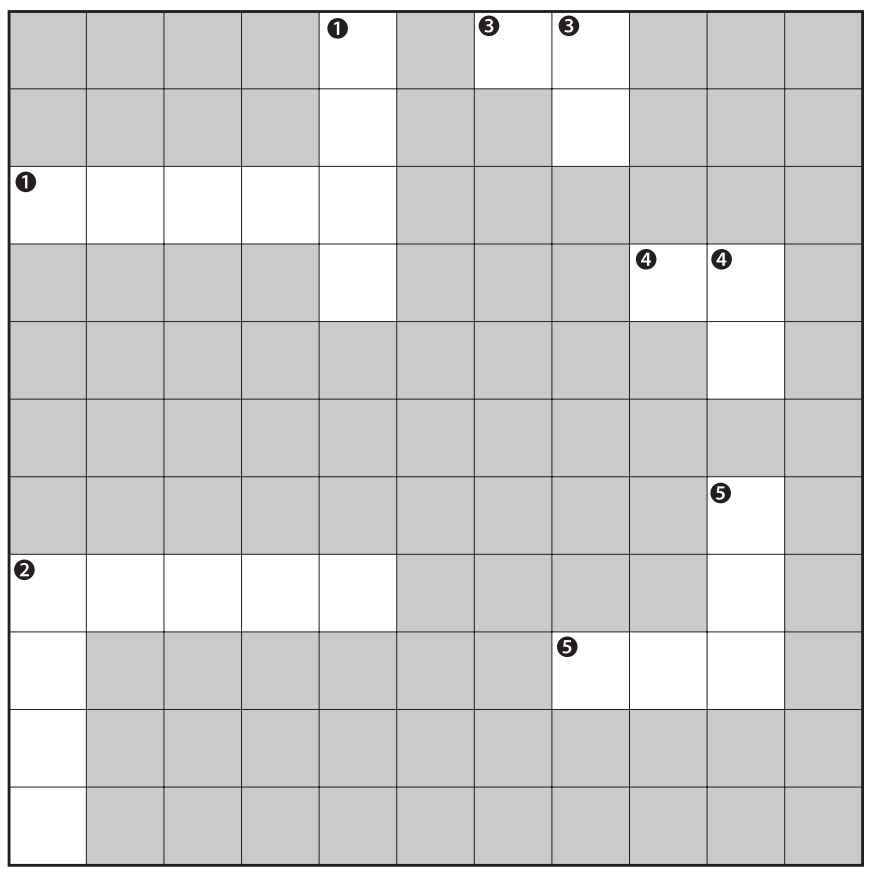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은 매해 많은 입시 부분이 바뀐다는 점이다. 이번 호 외대학보 기획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 당장 우리학교도 예외가 아니다. 2020학년도 입시전형에선 입학 전형 학생부 교과 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폐지됐으며 2단계 면접 평가 방식 시기도 변동됐다. 또한 수학 · 과학 분야의 특기자 전형이 폐지되기도 했다. 2021년에도 평가 방식의 변화가 예고돼있다. 이처럼 매해 바뀌는 입시 제도에 △수험생△학부모△교육관련 기관들은 많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변화에 능숙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필자는 이제 대학교 3학년으로 대학 입시와는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대학입시란 기억은 강력히 남아 내 기억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당시엔 대학을 가는 게 인생의 전부이며 대학이 곧 나란 사람을 정의한다고 생각했기에 수능 시험 후에도 나에게 맞는 대학입시 전형을 찾아다니며 어떻게든 서열이 높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운이 좋게 대학에 합격해 현재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그때의 불안했던 심정이 상기된다.

이처럼 입시제도의 변화가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대학 입시 제도는 바람직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어떠한 사건으로 순간순간 바뀌기보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변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공부만으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안정을 줘, 그들이 쌓아왔던 노력들이 빠르게 바뀌는 입시제도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입시 정책을 내놓을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수 편집장 97didu@hufs.ac.kr

십자말풀이



가로
1. 우리학교 ○○○○○ 도입배경 (5면 참조)
2. ○○○○○ 근무제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9면참조)
3. 축구와 ○○의 나라, 브라질 (6면 참조)
4. 주 52시간 근로제는 저녁이 있는 삶을 ○○할까? (9면 참조)
5. ○○○의 다양한 행사 (3면참조)

세로
1. 오락가락 ○○○○, 우리학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4면 참조)
2. 대학생 주거난 속, 글로벌캠퍼스의 ○○○○은 어떠한가 (7면 참조)
3. ○○에 불을 비추는 등대(10면 참조)
4. 한인 최초 캐나다 온타리오주 ○○조성준을 만나다.(12면 참조)
5. 우리학교 HK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짧고 굵은 아시아 ○○○' 열어 (1면 참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세 분에 한하여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외대학보 100기 수습기자를 모집합니다.

외대학보는 1955년 창간 후 2019년 오늘까지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학교 언론사입니다.
외대학보사에서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추구할 열정 있는 수습기자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한국외국어대학교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재학생
2. 모집기간 : 2019. 11. 22(금) 까지
3. 지원방법
1)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나 에브리타임에서 지원서를 다운 받는다.
2) 지원서를 작성 · 제출한다
3) 합격 발표를 기다린다.

4. 입사시험일정
1) 지원서에 적힌 연락처로 '면접고사 및 면접' 장소와 시간을 개별 공지함
2) 합격자 발표일은 추후 개별 통보함

5. 지원자 유의사항
1) 3학기동안 활동 가능한 학생 지원 바람 (외대학보사 임기는 방중 수습기간 제외 총 3학기)
2) 방학 기간 중 매주 주말을 제외, 수습기자 교육일정을 진행하니 참가 가능한 학생만 지원 바람
3) 합격자는 방중교육동안 수습기자를 거쳐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정기자로 활동하게 됨

6. 문의사항 연락처
〈97didu@hufs.ac.kr〉, 서울배움터 기자실: 02)2173-2504

☆ 언론 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학보사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 외대학보는 열정과 책임감 넘치는 학생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UFS PRESS

사설

대학 입시철에, 이건창(李建昌, 1852-1898)과 가을하늘을 생각한다.

대학 입시철이다. 지난 14일은 수능시험이 있었고, 17일은 순국선열(殉國先烈)의 날이었다. 1905년11월17일 을사늑약(乙巳勒約)이 있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제31회 임시총회에서 을사늑약을 잊지 않기 위해 1939년 11월21일 광복을 위해 순국한 선열을 기리는 날로 정한 것이다. 16일과 17일, 23일과 24일에는 논술시험이 주요 대학에서 치러진다. 고3들의 심정은 우리가 겪었고, 또 우리 아들딸이 겪었기 때문에 잘 안다. 큰 관문을 지나가고 있다. 인생은 큰 시험, 작은 시험 등 시험의 연속이다. 시험과 시험 내용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과 인재상의 변별을 통해 응시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시대적 요청에 의한 지식을 묻는 시험은 나의 사유를 시대적으로 제한하고 시대적 편견을 조장하고 조작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려고 애써야겠지만, 시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험에 얽매이지 말고 눈을 더 크게 뜨라고 말하고 싶다.

시험보다는 시대를 꿰고 혹 시대를 뛰어넘는 뜻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우리 삶에서 시험은 참고사항 중 하나일 뿐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이고, 또 무엇을 배울 것인가다. 공자(孔子)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울려오는 삶과 배움의 경지가 달라졌다. 그는 15세에 배움에 뜻을 두고(志學), 서른에 무엇을 할 것인지 뜻을 세우고(而立 혹은 立志), 마흔에 그 소명에 대한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되고(不惑), 쉰에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을 비로소 진정 알게 되고(知天命), 예순에야 사람들 말에 화를 내지 않고 듣게 되고(耳順), 칠순에야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바른 마음(從心所欲不踰矩)을 갖게 됐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시험 역사는 아주 오래됐다. 삼국시대부터 일부 시행되기 시작한 과거시험이 고려대를 거쳐 조선대에 오면 더욱 정교한 사회 시스템이 된다. 3대에 걸쳐 과거시험 합격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 가문은 사대부 신분을 잃는다. 조선시대 최고령 과거 시험 합격자 정순교(丁洵敎, 1805-?) 할아버지는 1890년 70세 이상 할아버지들만 치르는 과거시험에서 만85세에 합격했다고 한다. 물론 그가 자신과 가문의 명예와 실리를 위해 공부하고 과거를 준비했겠지만, 앞의 공자 이야기처럼 유가 이념상 삶은 배움의 연속이며 평생 배우고 성숙해지는 것이다. 조선 시대 최대 장원자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 같은 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에도 도가 터서 장원을 9번이나 했다. 그는 시험에 도가 튼 이기도 하지만, 시험에만 도가 튼 것이 아니라, 성리학에도 도가 터 그의 이기론(理氣論)은 조선 성리학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대표하는 철학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한다. 또 아무도 예상하지도 않던 시절에 왜란을 대비해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국가정책 전문가기도 했다.

조선시대 전체 과거시험 중에서 최연소 합격자는 강화도 별시(別試)에서 합격한 만14세 소년 이건창(寧齋 李建昌, 1852-1898)이다. 김택영(金澤榮, 1850-1927)은 한국 역사상 최고 문장가 9명 중 한 사람으로 이건창을 꼽았다. 이건창은 1866년 만14세에 전체 6명만을 뽑은 별시 문과에 5등으로 합격했다. 이 해에 병인양요(丙寅洋擾)로 강화가 함락되고, 그의 할아버지 이시원(李是遠, 1790-1866)이 그의 아우 이지원(李止遠, ?-1866)과 함께 이 일을 국치로 여겨 한때 나라의 녹을 먹은 관료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가족들 앞에서 자결했다. 고종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강화에서 별시 문과를 치렀다. 이시원의 손자며 당대의 천재로 소문난 이건창이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배려도 작용해 이 별시에서 급제했고 부침(浮沈)의 삶을 살았다. 그는 암행어사 시절 부패고위관료를 파면시켜 정적들의 공격을 받아 유배를 두 번 간 꼬장꼬장한 고위관료였다. 또 강화학을 계승한 양명학자며, 할아버지 유지를 받들어 주체성을 강조하며 척양척왜(斥洋斥倭)로 일관했다. 그러나 그는 꽉 막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사상은 허명(虛名)을 배격하며 실리(實利)를 추구하고 실심(實心)을 강조하는 정통 양명학을 계승했으며 친분이 두터운 개화파들도 있었다. 그는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운명했지만, 생전에는 러시아나 일본에 나라를 뺏기지 않을까 국운을 염려하며 살다 갔다.

이들은 시험을 잘 본 이들이지만, 나는 이들이 정지용(鄭芝溶) 시인의 '고향' 이란 시에 나타나는 '고향의 높푸른 하늘' 을 사랑하고 그린 이들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시험만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 수천년 동안 이 땅의 하늘이었고, 앞으로도 이 땅의 하늘일 늦가을 높푸른 하늘을 보며 사는 사람이기를 바란다.

김원명(철학과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97didu@hufs.ac.kr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김원명
편집장 김지수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한인 최초 캐나다 온타리오주 장관 조성준을 만나다.

조성준(영어 · 영어 56) 동문은 1967년 캐나다에 이민을 간 이후 1991년 토론토 시의원을 시작으로 선거에서 8선을 했으며, 지난해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노인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캐나다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에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봤다.

Q1 우리 학교 영어과에 진학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중 · 고등학교 시절 영어를 가장 좋아하고 성적도 다른 과목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영어는 세계적인 언어이기에 공부해보고자 우리 학교 영어과 진학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영어를 열심히 공부한 것이 캐나다에서 장관이 될 수 있었던 큰 요인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Q2 대학시절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궁금합니다.

입학 첫 해엔 하루에 5시간 이상 자 본적이 없을 정도로 학업에 열중했고 졸업한 뒤엔 미국 대사관 문화부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대사관 입사 시험에 우리학교 졸업생 2명만 합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사관 근무시절 당시 막 제대한 남동생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고 싶다고 통역을 부탁해 면접을 같이 보러 갔습니다. 이민관이 제게도 이민 갈 의향이 있는지 물으며 서류를 줬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생은 이민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저는 합격해 캐나다로 가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1967년 3월 캐나다 밴쿠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밴쿠버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크게 해 거부가 되거나 열심히 공부해 전문가가 돼 사회에 봉사하는 것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느꼈고 저는 공부의 길을 택했습니다.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선 많은 돈이 필요해 임금을 많이 주는 광산에서 광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녁엔 웨이터로 밤엔 청소부로 두 가지 일을 더 했기 때문에 자정이 넘어야만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학비를 마련한 뒤 공부를 시작했지만 건강문제로 학업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한국 귀국도 생각했으나 마음을 다잡고 캐나다에서 제일 큰 도시인 토론토로 이주했습니다. 이후 토론토 종합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고 토론토 대학교 사회사업대학원에 찾아가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사업을 공부한 경험이나 근무한 경험이 전혀 없었던 저는 사회사업 기관인 천주교 아동 보호소에서 1년간 일하고 오면 입학을 허락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좋은 평가를 받아 2년간 장학금을 학위를 받고 졸업 후엔 토론토 교육청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며 사회사업가로 남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론토 대학교 교육대학원에 들어가 상담심리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재일동포 지문날인 제도 반대운동을 시작하며 미국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제시 잭슨 목사와 함께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박사 공부를 하는 도중 한국에서 서울대학교의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북미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한인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로 떠올랐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연방국회의원으로 출마해 달라는 간청을 받아 연방 국회의원후보로 출마했습니다. 당시 저와 경합을 하게 된 후보자는 캐나다인으로 토론토 대학교 정치학박사이자 교수였고 그 분과 맞서기 위해 저도 상담심리학과 교육학 박사 학위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연방선거에선 낙선했지만 인지도를 쌓은 덕분에 3년 후에 토론토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유색인종이 토론토 시의원으로 당선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후 8선을 하고 온타리오 주 정치로 무대를 옮겨 재선까지 성공한 뒤 장관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Q3 캐나다에 가셨을 때 힘드셨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나요?

첫 번째로, 인종차별이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당시 밴쿠버에서 버스를 탔을 때 내 옆자리가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은 내가 유색인종이란 이유로 옆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일 큰 도시였던 토론토는 그 때도 인종차별이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두 번째론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것이 힘들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러 찾아가는 곳마다 매번 묻는 질문은 캐나다에서의 직장경험의 유무였습니다. 이에 이민 초기였던 저는 할 수 없이 비교적 수월한 접시 닦기로 첫 일을 시작했습니다.

Q4 캐나다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의 다른 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고 캐나다는 의원내각제란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캐나다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고 국정을 운영합니다. 캐나다인들은 평소엔 조용한 편이지만 선거 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교체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선 캐나다에 비해 집회가 많고 그 규모가 비교적 큰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집회의 인상적인 점은 대규모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집회를 통해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대통령도 귀를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정치 문화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두 나라 모두 민주정치와 자유를 사랑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며 인권을 존중한다는 면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Q5 우리나라에선 노인복지부 장관이란 직책이 아직은 조금 생소한데요. 노인복지부가 생기게 된 배경과 하는 일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장관명은 노인 및 장애인 복지부 장관(Minster for seniors and Accessibility)입니다. 2년 전만 해도 노인 부처와 장애인 부처가 각기 다른 부처였으나 지난해 6월 총선 후에 보수당이 정권을 수립하면서 두 개의 부처를 통합했습니다. 이에 처음 장관이 임명됐고 제가 초대 장관직을 맡게 됐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엔 약 1,400만 명의 주민이 사는데 그 중 250만 명이 노인이고 230만 명이 장애인입니다. 이 사람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온타리오 주의 과반을 훨씬 넘는 인구를 돌봐야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우리 부처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처가 하는 일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노인이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장애인들을 위해 더 나은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Q6 노인 복지부 장관으로 일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또는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을까요?

이 곳 캐나다에서 장관직은 크게 존경받는 직책인 것 같습니다. 어느 종합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학의 총장님이 대학교 정문까지 나와 환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술대학을 방문했을 땐 그 대학의 학장님이 학교 정문까지 나와 환송해 주셨습니다. 장관이 된 다음부턴 훌륭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고 캐나다인이란 정체성을 가지며 자부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초의 한인 캐나다 장관이라는데 자부심이 있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한국계 캐나다 사람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Q7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10년 전부터 캐나다 토론토 시는 세계청소년지도자그룹(Global Youth Leaders)을 창설해 △리더십 훈련△자원봉사△워크샵 등을 통해 한국계고등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해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일류대학에 입학한 학생도 있을 만큼 많은 학생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관직을 수행하느라 다소 바쁘지만 차후에 대학생 그룹과 초등학생 그룹도 양성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들이 캐나다를 포함한 지구촌에서 무한히 뻗어 나가며 능력 있는 미래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Q8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말씀이 있으실까요?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해 크게 성공하고 그 성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는 사람이 되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창조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한한 재능을 주셨음을 믿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분투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늘 큰 꿈을 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되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학교 학생이란 것에 감사하며 강한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재일동포 지문날인 제도: 일본에서 1952년 시행된 외국인 등록법에 따라 모든 외국인에 강제한 제도로 모든 외국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인식하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이서미 기자 99seomi@hufs.ac.kr